



작자미상, 「매화전」

- 갈래 : 애정 소설, 도술 소설, 가정 소설, 전기 소설
- 성격 : 전기적
- 제재 : 매화의 시련과 극복
- 주제 : 남녀의 애뜻한 이별과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
- 인물 :
 - 매화 : 여자 주인공. 남장을 한 채 조 병사 집에서 지내게 되나 계모의 계약에 의해 집에서 내쫓김. 아버지의 도술에 의해 구출되어 양유와 혼인을 하게 됨.
 - 양유 : 남자 주인공. 매화가 여자임을 알고 혼인을 하고자 함. 계모의 계약으로 우여곡절 끝에 구월산에 가서 매화와 혼인을 함.
 - 조 병사 ; 양유의 아버지. 최 씨 부인에게 속아 매화를 집에서 내쫓음.
 - 김 주부(=상객) : 매화의 아버지. 매화가 여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건을 전개시킴. 양유의 액운을 예언하여 양유와 매화의 혼인의 필연성을 제공함. 도술을 부리는 전기적 인물임.
 - 최 씨 부인 : 양유의 계모. 자기 동생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 혼인을 방해함.
- 삽입시의 특징 :
 - 산문의 단조로운 구성에 변화를 줌.
 -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거나 사건의 요약적 제시 역할을 함.
 - 인물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냄.
 -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함. 혼인을 하게 됨.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국문 소설로 작가와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주인공 매화와 양유의 이름을 따서 ‘매화양유전’, ‘유화양매록’이라고도 부른다. 「매화전」은 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으로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애정 소설로 볼 수 있으며, 매화의 아버지 김 주부의 도술적인 행위와 신분을 놓고 보면 도술 소설의 경향도 짙다. 더불어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방해하는 인물로 양유의 계모가 설정되어 있어서 가정 소설적인 요소 또한 지니고 있다.

주제

남녀의 애뜻한 이별과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경기도 장단에 사는 김 주부라는 선비는 도술이 능했는데 무남독녀 매화를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김 주부를 해치려 하므로 그는 매화를 남장(男裝)시켜 길에 버리고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매화는 조 병사의 집에서 그의 아들 양유와 함께 공부하며 자란다. 어느 날 매화는 양유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부모의 승낙을 받은 뒤 혼약하기로 한다. 한편 관상쟁이가 와서 양유의 관상을 보더니 귀하게 될 것이나 호환(虎患)이 있을 것이니 매화와 혼인시켜야 한다는 글을 남겨 놓고 사라진다. 악한 성품을 지닌 양유의 계모는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려는 계약을 세운다. 계모가 사람을 매수하여 매화의 아버지가 나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자, 조 병사는 이를 듣고 매화를 구박하다가 결국 내쫓는다. 계모의 남동생에게 쫓기게 된 매화는 강물에 몸을 던지나 아버지 김 주부가 도술로 구출한다. 양유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 전날 호랑이에 물려 구월산에 가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신부가 바로 매화였다. 김 주부는 도사로 변하여 조 병사를 구월산으로 불러 아들과 만나게 한다. 이들은 그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게 된다. 그 뒤 김 주부는 신선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

#작품의 특징

-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자연물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드러냄.
- 삽입시를 통해 인물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 삽입시를 통해 인물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함.
- 비유적 표현에서 당대의 관습적 사고가 반영됨.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의 현재 상황을 암시함.
- 사건 전개에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 장면 전환을 나타내는 상투적 어휘가 사용됨.
- ‘속고 속임’, ‘감추고 드러냄’의 서사 구조를 통해 대중 소설적 특성이 나타남.
- 다양한 고전 소설 유형이 지닌 특징들을 두루 보여주는 복합적 성격의 소설임.
- 부분적으로 판소리 사설투가 드러남.



작자미상, 「매화전」

[앞부분의 줄거리]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김 주부에게 매화라는 무남독녀가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의 도술을 두려워하여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을 시켜 길거리에 두고 김 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 남장 모티프 ↳ 종7품의 관직
↳ 여자 종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더라. 『매화 흔연히 웃으며』 가로되,

↳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 양유에게 정체를 감추기 위해 짐짓 태연하고 대범한 척함.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오.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
오. 분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 슬픈 기색의 이유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돌려냄. ↳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 여자들의 일로 여김.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皓齒)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유 그
『』: 여성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남성처럼 웅장한 목소리를 냄.

↳ 가냘프고 약하여 ↳ 희고 깨끗한 이 ↳ 옥으로 만든 쟁반 ↳ 진실로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概)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지어 화답하매 매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 이상아름답게 좋은 향기 ↳ 방 안에 가득함. ↳ 매화에 대한 연정으로 인한 양유의 심적 혼란

↳ 경치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楊柳先得春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梅花何不樂』 『』: 삽입 시-양유가 쓴 시. 매화에 대한 양유의 연정을 드러냄.

하였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 관습적 비유 胡蝶未知花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胡蝶未知花
↳ 매화. 관습적 비유.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당대의 관습적 사고가 드러남.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鴛鴦不得水』 『』: 삽입 시-매화가 쓴 답시. 양유가 매화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둘이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함. 양유가 매화가 여자임을 확인하는 계기.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 걱정스런 기색

“나는 과연 여자이거나 『그대는 사부(士夫) 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오. 낸들 양지작
을 모르리오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 짓을 하리오. 부모의 명
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사대부.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 ↳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 ↳ 『』: 신분 차이를 인식함. 사대부가의 운택한 생활 ↳

↳ 가문의 명예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화의 전통적 혼인관이 드러남.

↳ 기쁜 기색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쭙오되,
↳ 어릴 적 매화를 구조해 조 병사의 집으로 데려온 인물.

↳ 매화의 아버지인 김 주부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변장한 것임.

“외당에 상객*이 왔으며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 양유의 아버지인 조 병사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 양유의 아버지인 조 병사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작자미상, 「매화전」

“두 아이 상을 보라.”

↳ 관상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서이다.”

병사가 가로되, ↳ 매화의 정체가 드러나는 계기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오.”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오.”

매화 무로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 미래, 앞날 ↳ 부끄럽고 겸연쩍어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가련치 아니하리오.”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 전기성. 상객이 신이한 인물임을 암시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견(因忽不見)* 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拆)*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견필(見畢)에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 사건 암시(복선의 기능). 조 병사가 나중에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허락하는 계기. 양유의 액운을 막을 수 있는 방책.

↳ 다 보고 나서 ↳ 크게 놀라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매화가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서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

↳ 남을 속여 넘김.

↳ 인물의 말을 통해 그간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

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지 말라.”

↳ 집안의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

↳ 양유의 계모인 최 씨 부인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오. 행실을 가르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 애뜻하게 대함.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 봉건적 가치관-유교의 남녀유별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으며,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월

↳ 화제 전환(=각설). 고전 소설 특징

명사창(月明紗窓)*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다투어 공부하며 다투어 노잔 말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남동생 있으며 혼사할 뜻

↳ 계략

↳ 계모 모티프

자신의 남동생을 매화와 혼인시키려는 최 씨 부인의 의도

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오.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양유에게 닥칠 불행을 피하기 위해 매화와 양유를 부부로 맺어 주려 함.

↳ 낮빛이 변하여.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황하는 마음이 표정에 드러남.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결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 매화를 자신의 남동생과 혼인시키려 혼인을 방해함.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 매화의 고향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만안하여: 얼굴에 가득하여.

*상객: 관상을 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관상쟁이.

*호식: 사람이 범에게 잡아먹힘.

*인홀불견: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짐.

*개탁: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음.

*월명사창: 달이 밝게 비치는 규방의 창.

*상처: 아내의 죽음을 당함.



작자미상, 「유충렬전」

- 갈래 :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적강 소설, 국문 소설
- 성격 : 전기적, 우연적
- 배경 : 시간-명나라 시대, 공간-중국 명나라 조정과 대륙
- 제재 : 유충렬의 행적
- 주제 :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의 행적
- 인물 :
 - 유충렬 : 천상에서 적강한 신적 능력의 소유자. 전형적인 영웅. 천상에서도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름은 재미성이며 백옥루 잔치 때에 익성(=정한담)과 대결을 하다가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서 유심의 아들이 됨.
 - 유 주부(=유심) : 유충렬의 아버지. 개국공신의 후예로 정직하고 충성스런 인물.
 - 강 승상(=강희주) : 유충렬의 장인. 강 남자의 아버지. 유심과 마찬가지로 충직한 인물. 유심을 위한 상소를 올렸다가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을 감.
 - 강 남자(=강경화) : 유충렬의 부인. 강 승상의 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영릉 관비의 양녀로 고생하던 중 유충렬과 재회함.
 - 영릉 관비 : 강 남자의 양어머니. 강 남자를 구해 준 후 양녀로 삼고 험하게 대함.
 - 연심 : 강 남자의 조력자. 영릉 관비의 딸. 유충렬을 만나기까지 강 남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
 - 정한담 : 천상에서 적강한 신적 능력의 소유자로 악을 대표하는 간신. 적과 내통하여 천자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유충렬에게 퇴치됨.
 - 최일귀 : 정한담과 함께 천자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퇴치되는 인물로 악을 대표하는 유형적 인물.
- 「유충렬전」의 영웅의 일대기 구조 :

고귀한 혈통	고위 관리인 유심의 아들로 출생함.
신이한 출생	유심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산천에 기도하여 충렬을 얻음.
비범한 능력	충렬은 천상 선관이 하강한 인물로, 비범한 기상을 지니고 태어남.
유년기 시련	정한담의 모함으로 아버지는 귀양 가고 어머니는 도적에게 잡혀 가고 충렬은 물에 던져짐. → 기아(棄兒:어려서 버려짐)
조력자의 도움	강 승상의 도움(구출, 양육), 도승의 도움(무술을 익힘)
성장 후 위기	정한담이 외적과 결탁하여 난을 일으키자 나라가 위기에 빠짐.
위기 극복과 승리	충렬이 정한담을 죽이고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함. 부모, 강 승상, 부인을 모두 다시 만나고 부귀를 누림.

#EBS

해제

이 작품은 ‘유충렬’이라는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적강한 유충렬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후 위기에 처한 나라와 가문을 구한다는 것으로, 「주몽 신화」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영웅 서사 구조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이나 인조의 남한산성 피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대군과 비빈이 청나라로 잡혀간 것 등과 같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당대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공간적 배경이 중국의 명나라인 것, 주인공 유충렬이 두 번에 걸쳐 호국을 정벌하고 호왕을 살육하는 것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과 청나라에 대한 당대 민중의 적개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의 행적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의 충신인 유심은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남양 형산에서 치성을 드리고 태몽을 꾸 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충렬이라 짓는다. 정한담과 최일귀 등은 토변과 가달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유심의 태도를 문제 삼아 그를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살해하려고 하지만, 충렬은 천우신조로 살아난 후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위가 된다. 유심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강희주 역시 정한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고, 강희주의 가족들은 빨빨이 흩어진다. 충렬은 부인과 이별한 후 백용사의 노승을 만나 도술을 배운다. 이때 남적이 명나라를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남적에게 항복한 후 천자를 공격한다. 이에 유충렬이 등장하여 천자를 구한 후 정한담을 사로잡는다. 정한담을 응징한 유충렬은 이후 황후와 태후, 태자를 구한 후 헤어졌던 자신의 가족과도 재회하여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공명을 누린다.



작자미상, 「유충렬전」

↳ 원수(=유충렬)의 부인인 강 낭자
 이때 **낭자**, 연심이 잡혀갔던 말을 듣고 신세를 자탄하더니 『뜻밖에 **관비** 십여 명이 나와 잡아가다가 계단 아래에 엎드리니,』 원수
 ↳ 영릉 관비의 딸. 강 낭자를 도와주는 인물

↳ 관아에서 부리는 여자 중
 유충렬 ㄱ
 『관리를 기만한 죄(영릉 관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수(=유충렬)의 수청을 낭자에게 강요 → 연심이 강 낭자를 대신하여 수청을 들 → 영릉 관비가 이 사실을 충렬에게 고발)로 원수 앞에 잡혀감.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을 보니 낮이 익은 듯하고 심신이 **비감하여** 자세히 보니, 의상은 **남루하나 기생(妓生)** 되기로 마음먹을
 ↳ 슬픈 느낌이 있어 ↳ 옷이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함.
 것 같지 않고 천인 자식 아깝도다.
 원수가 소리를 나직이 하여 낭자더러 말하기를,
 “거동을 보니 천인 자식이 아니요,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 하니 뉘 집 자손이며 낭자는 누구건대 **청춘소년에** 수절
 ↳ 연심 ↳ 스무 살 안팎의 젊은 사람 ㄱ
 을 하며, 무슨 일로 저리 되어 관비의 양여자*가 되었는지 진정을 숨겨 꺼리지 말고 날더러 이르면 알 일이 있으리라. 말을 자세
 히 하라.”
 하니, 이때 낭자 계단 아래에 엎드리어 원수의 말을 들으매 낭군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가던 말이 두 귀에 쟁쟁하여 일본도 다름
 이 없는지라.
 낭자 전일은 도망하여 왔기로 성명과 거주를 속였더니, 마음이 자연 비감하여 진정으로 여쭙오되,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골 월계춘 사는 **강 승상**의 무남독녀이옵더니 부친이 만 리 연경에 귀양간 **유 주부**를 위하여 상
 ↳ 강 낭자의 아버지. 유충렬의 장인 ↳ 유충렬의 아버지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열거함. 강 낭자가 자신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진술함. 이를 듣고 충렬은 낭자가 자신의 부인인 강 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됨.
 소하였더니, 만고역적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하여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하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 궁비 속공*하려 하고 금부도사
 ↳ 충렬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충렬과 어머니를 죽이려 한 인물.
 와 잡아갈 제, 청수에 야간도주하여 모친은 물에 빠져죽고 소녀도 죽으려 하더니, 영릉 관비가 외촌에 갔다 오는 길에 데리고 **제
 집에 와 협약이 무수하되 연심**의 힘을 입어 이때까지 살았으나 오늘은 이 말을 원수 전에 고하고 하릴없이 자결코저 하나이다.”』
 ↳ 영릉 관비의 핍박 ↳ 연심의 도움으로 살아감. ↳ 어쩔 수 없이

원수 이 말을 듣고 당에 뛰어 내려서며,
 “이게 웬 말인가.”
 영릉 태수 바빠 불러 강 승상을 오시라 하나라.
 이때 강 승상이 **처자**를 생각하여 잠을 못 자니, 몸이 곤하여 졸더니 뜻밖에 원수 오시란 말에 놀래어 들어오니 원수가 말하기를,
 ↳ 아내와 자식
 “이게 강 낭자 아니오니까. 강 낭자가 살아왔나이다.” -강 낭자의 말을 듣고 강 낭자가 자신의 부인임을 인지함.
 승상이 이 말을 듣더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감감한지라.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신호**를 내어놓고 서로 견주어 살펴보
 니 **일호(一毫)**도 의심이 없는지라.』 승상이 낭자의 목을 안고 **궁굴며** 말하기를, ↳ 유충렬과 강 낭자가 헤어질 때, 그 둘은 각각 입고
 ↳ 한 가닥 털. 극히 작은 정도를 뜻함. 『강 낭자가 자신의 부인임을 확인함. ↳ 서로 얼싸안고 뒹굴며 있던 옷에 글귀를 적은 후 서로에게 건네주었음.
 “내 딸 **경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나 생시냐. 너의 낭군 유충렬이 왔으니 소식 듣고 찾아왔느냐. 『우리
 ↳ 강 낭자 이름
 집이 **소(沼)**가 되어 **양류청청(楊柳靑靑)** 푸른 가지 빈터만 남았으니』 슬픈 마음 어찌 다 진정하리.”
 ↳ 연못 ↳ 수양버들 가지가 푸름. 『정한담의 모함으로 집안이 망함.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정담(細細情談)을 어찌 다 기록할까. -서술자 개입
 이때 **장 부인**이 내동헌(內東軒)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나와 보니, 낭자 **고부지례(姑婦之禮)**로 문안하고 살아난 말씀을
 ↳ 유충렬의 어머니 ↳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예
 자세히 하니 장 부인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 장 부인과 강 낭자 모두 정한담의 모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이 고생이 많다 하나 우리 고부 같을쏘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됨.
 이때 낭자 데려간 관비는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간장이 녹는 듯, 원수 동헌에 높이 앉아 관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묻기를,
 ↳ 영릉 관비 ↳ 강 낭자를 핍박한 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함.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천기(賤妓)** 년이 사람을 알아볼쏘냐. 청수에 가 낭자 구한 일로 풀어 주니 덕인 줄 알라.”
 연심을 불러 무수히 치사하고 보내려 하니 낭자 곁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 강 낭자가 청수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구한 일.
 “연심은 나와 백년 인연이니 일시 치사뿐 아니라 평생을 함께 지내고저 하니 황성으로 데려가사이다.” ↳ 처벌을 면하게 된 이유
 원수 그 말을 옳이 여겨 연심을 불러, ↳ 다른 사람을 칭찬함.
 “부인을 착실히 모시라.”



작자미상, 「유충렬전」

연심이 항공하여 하더라.

↳ 왕명으로 지방에 나간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는 일

원수가 전후사연을 낱낱이 기록하여 나라에 장계하고 길을 떠나올새 장 부인은 금덩*을 타고, 강 낭자와 조 낭자는 옥교를 타고 강 승상이 귀양을 갔을 때 그를 도와 준 여인. 유충렬이 그 공로를 높이 사 극진히 대접하며 함께 돌아오게 됨. ↳

좌우로 모시고, 강 승상은 수레 타고 오국 사신이 모셨는데, 원수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들고 대완마(大宛馬) 위에 높이 앉 동작이 느리고 더디게 ↳ 원수가 타고 있는 명마(名馬). '대완'은 옛 러시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로 명마(名馬)가 많이 났음. ↳

아 오마대로 행군하여 완전히 나오니, 그 거동과 그 영화는 천고에 처음이라. - 서술자 개입

계양역을 지내어 청수 가에 다다르니 소 부인 죽던 곳이라. 원수가 승상을 위하여 영릉 태수 바빠 불러 제물을 장만하여 승상을 ↳ 강 낭자의 어머니(=강 승상의 부인). 정한담의 일행에 쫓기게 되자 청수에 몸을 던져 자결을 함.

주인 삼고 조 낭자는 집사 되어, 원수는 축관(祝官) 되고 축문을 읽으며 통곡하는 말이 회수에서 모친 제사할 때와 다름없더라.

유충렬은 자신의 모친이 죽은 줄 알고 회수에서 모친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처럼 진심을 담아 소 부인의 죽음에 애통함을 표현한다는 뜻 ↳

제를 파한 후에 행군하여 올라올 제, 이때 천자와 황태후며 연왕과 조정에서 충렬을 가달국에 보내고 주야 생각하며 장 부인을 오랑개 나라 ↳ 장 부인(=유충렬의 어머니)의 생사를 궁금해함. ↳

승전 결과(전쟁에서 이김)와 가족 재회(장 부인과 강 낭자를 만남) ↳ 찾아오는가 하여 일야(日夜) 한탄하더니, 뜻밖에 원수의 장계를 보고 즐거운 마음 측량없으며 장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 하고 다투어 나오더라.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이산(離散)의 고통을 겪은 민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천자와 태후와 연왕이 백 리 밖에 나와 맞을새, 원수의 위엄을 보니 『서천 삼십육 도며 남만 오국이며 금은 예단과 일등 미색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오국 사신이 선봉 되어 낭자하게 들어오고 그 가운데 금덩 옥교 떠오는데, 강 낭자는 좌편이요, 조 낭자는 우편 ↳ 확자지껄하고 시끄럽게 ↳ 공중

이라. 좌우 푸른 깃발 고였는데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양산(陽傘)대는 반공에 솟았도다.

강 승상이 수레 위에 높이 앉아 오며 군사 전후에 나열하고 그 뒤에 따르는 이 십장 흉모 사명기는 한가운데 세워 오고, 용이 그려진 기 봉황이 그려진 기 대장기며 깃발과 창검, 삼천 병마 전후에 대열을 짓고, 승전의 북소리와 행군의 북소리는 원근 산천에 진동하며, 도원수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 높이 들고 천자마 비껴 타고 황룡수를 거스르고 봉의 눈을 반만 떠서 군사를 재촉하니, 웅장한 거동은 일대 장관이요, 천추에 표문(表文)이라.』 『: 개선 행렬 묘사. 열거. ↳ 황룡의 수염

긴 세월 ↳ 나타내서 여러 사람에게 들려 알려짐.

이때 장안 만민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에 돌아온단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뜰에 빈틈없이 마주 나와 각각 만나 옥수(玉手) 나삼(羅衫) 부여잡고 그리던 그 정을 못내 즐겨 하여 울음소리 웃음소리 반공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 ↳ 유충렬의 귀환 후 백성들이 헤아렸던 자신의 가족과 재회함. → 이산(離散) 후 재회하는 가족들의 범위가 유충렬의 가족에서 그 주변으로 점차 확대됨을 드러냄. → 이를 통해 가족의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작가는 드러냄.

나갈 듯, 원수를 치사하고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여 요란하고, 금산성 아래 다다르니 천자와 황태후 옥련(玉輦)*에서 바빠 내려 장막 밖에 나서니, 원수 갑주를 갖추고 군의 예로 현신하니 천자와 태후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기를, ↳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임.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주야 염려하더니 이렇듯이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 어찌 다 칭찬하며, 회수에 죽은 모 ↳ 임금이 자신을 낮추는 말

친 데려온다 하니 만고에 없는 일이며, 옥문관에 강 승상과 청수에 죽은 강 낭자를 살려 오니 천추에 드문 일이라. 그대의 은혜는 백골난망이라. 그 말이야 어찌 다 하리오』 『: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언급하며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냄. 유충렬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 ↳ 유충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함.

황태후 원수를 치사한 후에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빠 들어와 땅에 엎드리니, 천자 내려와 승상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

↳ 현명하지 못하여 ↳ 유심(=유충렬의 아버지)과 강희주(=강 승상)

“과인이 불명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곳에 보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하나 지난 일은 물론(勿論)하 오.” ↳ 정한담과 최일귀 물론(勿論)=말할 것도 없음. 말할 것도 없이. → 지난 일을 따지지 말아달라는 의도. ↳

이때 황태후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다 말로 하리. - 서술자 개입

*양여자: 양녀(養女). 수양딸.

*궁비 속궁: 죄인의 아내나 딸 등을 관아의 노비로 넘김.

*금덩: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

*옥련: 왕이 거동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



작자미상, 「유충렬전」

#작품의 특징

- 영웅 소설의 전형성을 보여줌.
-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함.
- 사건의 우연성과 전기적 성격이 드러남.
-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 주인공이 겪는 가족의 분리와 재회 과정과 민중들의 이산(離散) 후 재회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離散)과 고통은 상하층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냄.
- 가족의 문제가 특수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두루 해당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작가 의식이 반영됨.



작자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갈래 : 판소리계 소설, 영정 소설
- 성격 : 해학적, 풍자적
- 배경 : 시간-조선 숙종 때, 공간-전라도 남원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춘향과 몽룡의 만남과 이별
- 주제 : 표면적-춘향과 몽룡의 계급적 신분 의식을 초월한 사랑
이면적-지배 계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서민의 항거,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신분적 한계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 인물 :
 - 성춘향 : 퇴기 기생(=월매)과 성 참판 사이에 태어난 서녀. 스스로 기생이 아니라는 당돌한 의식을 가지고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함. 후반 부에서 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며 절개를 지킴.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임.
 - 이몽룡 : 남원 부사의 아들. 광한루에서 그녀를 뵈는 춘향을 보고 반하여 청혼함. 후반부 암행어사가 되어 변 사또를 응징하고 춘향을 구출함.
 - 방자 : 이몽룡과 춘향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는 인물. 양반을 풍자·우롱하면서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어 희극미를 창출함.
 - 변 사또(=변학도) : 부패한 지방관으로 수청을 거절한 춘향을 핍박함.

#EBS

해제

이 작품은 「춘향전」의 대표적인 이본(異本)으로서 19세기 후반에 완관으로 「열녀춘향수절가」를 새 표제로 하여 출판된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이몽룡이 광한루에 갔다가 그녀를 뵈는 춘향에게 반하여 춘향과 연분을 맺으려고 하는 장면이다. 이 작품은 춘향의 열녀로서의 인간상을 내세우면서도, 유교 윤리를 단순히 관습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한 인간의 참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춘향의 신분이 성 참판의 서녀로 설정되었고 춘향과 월매, 향단의 인간상이 개성적으로 부각된 점, 판소리의 명창들에 의해 다듬어져 온 판소리 사설이 잘 반영되어 광대의 재담, 삽입가요가 포함됨으로써 흥겨움과 한스러움이 적절하게 조화된 점을 특징으로 한다.

주제

춘향과 몽룡의 계급적 신분 의식을 초월한 사랑

전체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단옷날 광한루에서 그녀 뵈는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고 춘향에게 구애하여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부친이 남원 부사의 임기가 끝나 서울로 임지를 옮기게 되자 몽룡은 부친을 따라가게 되면서 춘향과 이별하게 된다.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지조를 지키고 있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한다. 춘향은 죽을 각오로 수청을 거절하다 옥고를 치른다. 그동안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온다.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몽룡은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며 춘향을 구해 내고, 춘향 모녀를 서울로 데리고 가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삼아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



작자미상, 「열녀춘향수절가」

“여봐라, 이 애 춘향아!” /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래어,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이 애야, 말 마라. 일이 났다.” /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영이 났다.” / 춘향이 화를 내어,

↳ 이몽룡

↳ 비속어 사용. → 춘향의 당당한 성격 제시

“네가 미친 자식이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다 말이나.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켜 까먹듯 하였나 보다.”

빨리. 함부로. ‘종달새가 삼켜 까먹으려고 부리를 매우 빨리 놀림.’에서 온 말로 심없이 조잘거리는 모습을 비유함. ↙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너 그 큰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이 그네를 탈 양이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잡고 또한 이곳을 논할진대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라.

↳ 향기로운 풀

푸른 잎이 우거진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빼어난 봄이라 ↙

『방초는 푸르렀는데, 앞내 버들은 초록 휘장을 두르고 뒷내 버들은 연둣빛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평퍼져 광풍을 겨워 흐늘흐늘 춤을 추는데』 광루 구경처에 그네를 매고 네가 뭇 제 『외씨 같은 두 발길로 백운 간(白雲間)

『』: 장면의 극대화. 초록의 색채 이미지 → 자연의 생동감, 역동성

에 노닐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백방사(白紡紗)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백운 간에 희뜩희뜩

↳ 흰 누에고치만으로 실을 켜서 짠 명주

『』: 장면의 극대화. 선명한 색채 대비(붉은색과 흰색)와 음성 상징어 사용 →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역동성있게 묘사. 춘향의 그네 타는 행위가 몽룡을 유혹할 만한 행위임.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실 제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예 와서 함께 그네를 탔으되 그럴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여염집 사람을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 일반 백성의 살림집

방자 이면에 북이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말인즉 바른말이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대용적 표현 사용(고전 소설의 특징). 구체적인 내용을 감추어 독자의 궁금증 유발 ↙

방자 전갈을 모아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새 제집으로 돌아갔거늘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밥이 방장이라. 방자 들어가니, / “너 왜 또 오느냐?”

바야흐로 한창임. ↙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가에 있는 처자 불러 보기 듣기에 괴이하나 의심하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 대용적 표현(‘이리이리’)의 구체적 내용. 춘향의 환심을 얻으려고 춘향의 글재주와 관련한 평판을 언급함.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러한지 출연히 생각하니 갈 마음이 나되 모친의 뜻을 몰라 깊이 생각하여 한참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앉아 정신없게 말을 하되,

↳ 이 도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김.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는 청룡 하나 벽도지(碧桃池)에 잠겨 보이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러나저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가서 다녀오라.”

『』: 꿈을 근거로 춘향과 몽룡의 만남을 허락함.

↳ 신분 차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남.

→ 춘향과 몽룡의 만남을 운명으로 인식하는 근거.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체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

↳ 천천히 걸음. 또는 느린 걸음.

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 자라 걸음으로, 월태화용(月態花容) 고운 태도 완보로 건너갈 새 월(越)나라 서시(西施) 달 같은 자태와 꽃 같은 용모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름. ↙

중국 춘추 시대 월나라의 미인. 오나라에 패한 월나라 왕 구천이 ↙

서시를 부처에게 보내어 부처가 그 용모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오나라를 멸망시킴.

가 토성(土城)에서 배우던 걸음으로』 흐늘흐늘 건너올 제 도련님 간만에 절반만 비껴서서 완완히 바라보니 춘향이가 건너오는

↳ 중국의 지명

『』: 춘향의 걸음 묘사(비유, 통사 구조 반복)

↳ 세상에 짝이 없음. 유일함.

데 광한루에 가까운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월태화용이 세상에 무쌍이라. 얼굴이 조촐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개(半開)하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품은 듯,

↳ 춘향의 아름다운 용모 묘사(비유, 색채 대비)

춘향의 옷차림 묘사(비유) ↙

자주 치마 고운 태도 어린 안개 석양에 비치는 듯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무늬는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걸이 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하기를,

↳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자연스럽게. ↳ 잔심부름 하는 사람. 문맥상 ‘방자’



작자미상, 「열녀춘향수절가」

“앉으라고 일러라.”

『』: 몽룡의 관점에서 서술

춘향의 고운 태도 용모 단정히 하고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백색창파(白色滄波) 새 비 뒤에 목욕하고 앉은 제비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단장한 일 없이 천연한 절대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상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개하니

↳ ‘춘향’을 비유

↳ ‘춘향’을 비유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영주(瀛州)에 놀던 선녀가 남원에 귀양살이 왔으니, 월궁(月宮)에서 모시던 선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 아니로다.』 월궁향아(月宮姮娥)=달 궁전에 사는 선녀 → 절세미인을 가리키는 말. ↳

『』: 춘향의 관점에서 서술. 몽룡의 외양 묘사

이때 춘향이 추파(秋波)*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금세(今世)의 호걸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마 한가운데 높았으니 소년공명(少年功名)할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로우니 보국충신이 될 것이매』 마음에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단정히 하고 앉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 ↳

“성현(聖賢)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일렀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성은 성(成)가웁고 연세(年歲)는 십육 세로소이다.” / 이 도령 거동 보소. - 판소리 사설투(“~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 보니 나와 동갑 이팔이라. 성씨를 들어 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 분명하다. 두 성씨 결합하여 좋은 연분 평생동락(平生同樂)하여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냐?” ↳ 천생연분(天生緣分) ↳ 청혼(請婚)

“편모슬하로소이다.” / “몇 형제나 되느냐?” / “십육 세를 맞은 나의 모친 무남독녀(無男獨女) 나 하나요.”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년락(萬年樂)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개하여 가는 목 겨우 열여 옥성으로 여쭙오되, ↳

↳ 판소리 사설투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의 유교 봉건 윤리

↳ 신분 차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남.

한번 정을 맞긴 연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숙공방(獨宿空房)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당대 시대상이 드러남.

*명매기: 제빛과의 여름 철새.

*추파: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

#작품의 특징

- 배경 설화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임.
-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용됨.
- 판소리의 구연적 성격으로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남.
- 양반 언어(한자어)와 서민 언어(일상어, 비속어)가 혼합되어 나타남.
-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묘사가 뛰어남.
- 해학과 풍자적 표현이 많음.
-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이 두드러짐.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 갈래 : 애정 소설
- 성격 : 사실적, 진취적, 비판적
- 배경 : 시간-조선 속종 때, 공간-전라도 남원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낸 남녀의 사랑
- 인물 :
 - 송이(=김채봉) :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인물
 - 필성 :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 이 감사 : 평양 감사. 채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
 - 김 진사 : 채봉의 아버지. 벼슬을 얻기 위해 딸을 파는 출세욕에 사로잡힌 인물
 - 허 판서 : 한양 제일의 권력자. 매관매직을 하는 탐욕스런 인물
- 작품 내 「추풍감별곡」의 역할 :
 - 채봉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소재
 -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계기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애정 소설이다. 채봉과 필성이라는 두 주인공이 만나 온갖 어려움 끝에 혼인하게 된다는 줄거리는 전형적인 혼사 장애담에 속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파격적인 몇몇 인물의 행보는 당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사회상을 잘 드러낸다. 매관매직의 세대에 휘말려 딸을 첩으로 넘기는 대가로 현감 자리를 얻기로 한 김 진사의 모습은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성행했던 세태를 보여 주고, 혼사 자리를 정해 놓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쳤다가도 곤경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기생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지는 채봉의 모습은 주체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고 지지하던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주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낸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산책을 하던 중 필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김 진사는 한양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채봉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필성과 약혼을 한다. 한편, 채봉의 신랑감을 구하러 한양에 간 김진사는 세도가인 허 판서에게 파천 현감 자리를 얻는 대가로 돈 만 냥과 채봉을 첩으로 보낼 것을 약속한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 진사는 필성과의 약속을 무시하며 채봉을 허 판서에게 보내기 위해 다시 한양을 향한다. 그러나 필성과의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았던 채봉은 가는 길에 몰래 도망치고, 공교롭게도 그날 밤 김 진사는 화적을 만나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김 진사는 무작정 한양으로 가 허 판서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허 판서는 약속을 어긴 김 진사를 옥에 가두며 약속한 돈을 요구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김 진사 부인은 채봉을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어 받은 몸값을 어머니에게 주어 아버지를 구하기로 한다. 기생이 된 채봉은 기지를 발휘하여 필성과 만나 다시금 인연을 맺지만 기생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평양 감사 이보국이 나타나 서화에 뛰어난다는 채봉을 관아로 데려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 주고, 채봉에게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긴다. 채봉을 만나기 위해 관아의 이방을 자원한 필성을 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던 채봉은 어느 날 밤 「추풍감별곡」을 지어 울며 잠들었다가 이 감사의 눈에 띄게 되고, 이 감사는 채봉과 필성의 연을 맺어 주고 허 판서를 벌하여 채봉의 가족을 구해 준다.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아버지가 서울로 간 사이 이웃의 선비 장필성과 우연히 만나 혼약을 맺는다. 서울에서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과 딸을 주기로 하고 관직을 얻지만, 채봉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 한편 김 진사는 돈

↳ 당대 사회상 반영① 매관매직 성행

↳ 채봉의 주체적 성격

을 준비해 가던 길에 화적의 습격을 받아 재산을 모두 잃고 만다. 『채봉은 아버지를 위해 몸값을 받고 기생 송이로 살아가다가,

↳ 당대 사회상 반영② 화적떼의 출몰

이 감사의 눈에 띄어 관아로 일하러 오게 된다.』 『: 이 감사에 의해 관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생의 처지를 벗어남. 기생의 처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필성과의 결혼이 가능해지므로 사건 해결 과정의 일부로서 작용함.

↳ 평양 감사 이보국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을 책상머리에 얹드렸는데 깜빡 잠이 든다. 주사야몽 꿈이 되었는지, 『꿈속에서

↳ 김채봉의 기생 신분일 때의 이름

↳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남.

송이는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핀다.

↳ 호접지몽(胡蝶之夢). 중국의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 후 자신이 나비가 된 건지 그 반대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고사 인용.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공방에서 혼자 전날의 답장 글을 꺼내 놓고 울고 또 울며 보고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 있기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 쓸쓸하고 텅 빈 방

↳ 채봉으로부터 받은 글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에, 달려 들어가 마주 붙들고 운다.』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

『: 꿈속의 장면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이때 이 감사는 나이가 팔십여 세일 뿐 아니라, 일도(一道) 방백(方伯)*이 되어 『밤이나

↳ 서술자 개입.

↳ 전전반측(輾轉反側)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송이가 있는 방 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란다.

『: 훌륭한 관리로서의 면모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의 나이가 십팔 세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 저러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본다.

송이가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켜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들어가

↳ 남창으로 난 창문

주지(周紙)를 펼치고 보니, 「추풍감별곡」이라.

↳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등글게 만 종이

↳ 송이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임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쓴 글

이 감사는 그 글을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며 깨운다.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 보니 이 감사다. 대경실색(大驚失色)해 일어선다.

↳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

이 감사가 종이를 말아 들고, 『이 감사와 송이의 신분에 차이가 있음.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상하지분(上下之分)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귀히 여기고 있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하면 좋겠구나. 오늘 심중에 미한(微恨)*한 일을 다 말하여라. 이 자식이,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같이 생각지 않고 이 같은 원한을 가지고도 말을 안 하고 있던 말이나.”

↳ 「추풍감별곡」에 드러난 임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서러움.

송이는 당황해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

“소녀의 죄가 만사무석(萬死無惜)*입니다.”

이 감사가 허허 웃으며,

“내가 너의 소회를 듣고자 하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여라.”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송이가 한출침배(汗出沾背)*하고 몸이 떨려 말을 못 하고 서 있으니 감사가 또 말을 재촉한다.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감히 기망하겠습니까?”

↳ 남을 속여 넘김. 기만

하고,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선다. 그리고 『당초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글을 화답하던 일과, 그 모친이 장 씨를 불러 혼인을 약속한 일, 김 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 판서와 관계가 된 일이며, 허 판서가 저를 별실로 달라는 것을

↳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스스로 맺은 혼인 약속을 지키려 함.

↳ 당대 사회상 반영③ 축첩 제도 존재

김 진사는 허락하였으나 저는 장 씨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만리교에서 도망한 일, 그 후 모친이 찾아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을 주어 올려 보내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 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 씨를 다시 만나 몸을 허락한 일 등을 다 말한다.』 『: 사건의 요약적 제시

↳ 기생의 몸으로도 기지를 발휘하여 필성과의 약속을 지켜 냄.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코 보은해도 잊지 못하겠나이다.” / 하며 엎드려 운다.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감사가 송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송이야, 송이야, 울지 마라. 네 사정이 그런 줄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오늘에야 알게 되었으니 어찌 네 소원을 못 풀어 주겠느냐. 이제 보니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 이방(吏房)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장필성은 송이(=채봉)를 만나기 위해 양반 신분을 포기하고 중인 신분인 이방이 되었음. ↳ 송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력자. 해결사적 면모①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정(人情)의 지극한 이슬이라.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

↳ 서술자 개입-인간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를 드러냄.

↳ 서술자 개입-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을 드러냄.

다. 송이는 이 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가 부모 생각이 새로 나서 다시 감사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하정(下情)이 망극합니다. 그런데 소녀의 부모가 소녀로 인하여 곤경에 처했으나, 아직 소식을 모르오니 이 또한 원한입니다.” ↳ 어른에게 대하여, 자기 심정이나 뜻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송이를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허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가상하구나. 효열지심(孝烈之心), 이른바 천심(天心)에서 나오는 말이로다. 오냐, 그것도 급히 주선해 알게 할 터이니 염려 말거라.” ↳ 효자와 열녀의 마음 송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력자. 해결사적 면모② ↳

하고, 안방으로 건너와 혼자 누워 송이가 주지에 쓴 「추풍감별곡」을 여러 번 보며 칭찬을 그치지 않는다.

↳ 이른 아침 ↳ 송이의 글 솜씨를 칭찬하는 이 감사의 행동 묘사

이튿날 조조(早朝)에 이 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속으로 생각하되,

‘사또께서 이처럼 일찍 부르시는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이같이 부르시나?’

↳ 이 감사

하고 이 감사께 문안한다.

이 감사가 반가운 얼굴로,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니, 필성이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 들어간다.

감사가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고 송이를 부르니, 송이가 별당으로 들어온다. 필성과 서로 만나자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말없이 마주 앉으니, 이른바 양인심사양인지(兩人心事兩人知)*라. 감사의 앞이라 감히 말을 못 하니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

이 감사가 껄껄 웃고 필성을 보며, ↳ 질문을 던져 독자가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함. ↳

“필성야,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방의 천역(賤役)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가 예닐곱 달이 되어도 못 보다가 오늘에야 서로 만나 보니 어떠하냐?” ↳ 천한 일

필성이 더욱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일어서 절을 한다.

↳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이 감사가 송이와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음에 놀람.

*방백: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미한: 조금 한스러움.

*만사무석: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

*한출첨배: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양인심사양인지: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는 뜻으로, 옛 시 구절을 인용한 것임.

#작품의 특징

- 주제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통해 주제적 여성상으로 요구하는 당대 분위기를 반영함.
- 평양과 서울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을 설정함.
-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부조리한 사회상을 반영함.
- 사건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전개됨.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나타내는 극적 제시를 보임.
-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남.
-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냄.
-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 조선 후기 실제 유행하고 있던 가사체 작품인 「추풍감별곡」을 삽입한 것을 통해 당시 소설 속에 시를 삽입하는 형식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음.



작자미상, 「배비장전」

- 갈래 : 판소리계 소설, 풍자 소설
- 성격 : 풍자적, 해학적
- 배경 : 시간-조선 후기, 공간-제주
- 근원 설화 : 발치 설화(사랑하는 기생을 떠나보낼 때 소년이 기생에게 이를 뽑아준 설화), 미귀 설화(어린 기생에게 속아 미귀(쌀 껍질)에 갇힌 정차관 설화)
- 주제 : 위선적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 인물 :

풍자의 대상	정비장	기생 애랑과 이별하면서 앞까지 뽑아주는 인물
	배비장	처음에는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고 홀로 깨끗한 척하나, 결국 애랑에게 빠져 망신을 당하는 인물
풍자의 주역	애랑	방자와 계교를 꾸며 배비장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인물
	방자	배비장의 약점과 위선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인물(봉산 탈춤의 '말뚝이'와 비슷)

#EBS

해제

이 작품은 위선적 인물인 배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이다. 4·4조의 율문체, 해학적 상황 설정, 이중적 언어 사용과 같은 판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소설로,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이 기생 애랑에게 속아 망신을 당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다.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시대적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위선적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전체 줄거리

서울을 떠날 때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떠났던 배비장은 제주에 도착한 후, 기생 애랑에게 이까지 빼어 주는 정비장을 보고 비웃는다. 기생 애랑과 방자는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 계교를 꾸민다. 기생 애랑의 집에 몰래 찾아간 배비장은, 방자와 기생에게 속아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 배비장은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며 동헌 대청에 나와 온갖 망신을 당한다.

#작품의 특징

- 판소리 <배비장타령>이 소설화된 판소리계 소설임.
-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남.
- 리듬감 있는 4·4조의 율문체를 통해 당대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냄.
- 양반 언어(한자어, 고사)와 평민 언어(일상어, 비속어)의 이중적 언어 사용을 보임.
-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휘절형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 구조임.
-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 시대상을 반영함.
- ‘여인의 방 안→자루 안→피나무 껍’과 같은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를 전개하면서 해학적 상황을 드러냄.
-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문자를 쓰는 현학적 태도를 통해 인물의 허위의식을 드러냄
- 고사의 인물들을 활용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인물을 희화화하여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표현함.



작자미상, 「배비장전」

넙다 코를 탁 치니,

“동덩 지덩.” -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거문고 소리를 흉내냄→인물의 희화화.

“그 거문고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괴상하다.”

↳ 배비장이 입으로 악기 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고 겁을 주며 놀림.

저 계집 대답하되,

“무식한 말 하지도 마오. 옛적 여화씨 적에 생황(笙簧) 오음 육률을 내실 적에 공상각치우를 청탁(淸濁)으로 올리오니 상청음(上淸音)도 화답이랍네.”

↳ 고사 속 인물로 중국 상고 시대의 전설적 임금인 복희씨의 누이동생.

이놈이 옹계 듣는 듯이,

“네 말이 당연하다. 세사는 금삼척(琴三尺)이요, 생애는 주일배(酒一杯)라. 사정 강상월(上望月)이요, 동각 설중매(東閣雪中梅)라. 술 한잔 날 권하고

↳ 원문-世事琴三尺(세사금삼척)/生涯酒一杯(생애주일배)/西亭江上月(서정강상월)/東閣雪中梅(동각설중매)

해설-세상만사는 삼척 거문고에 부치고/생애는 한잔 술에 맡겼네/서쪽 정자는 강 위의 달이요/동쪽 누각은 눈 속에 매화 핀 곳 일세

의미-세상사와 인생이 덧없으니 풍류나 즐길 / 인용의도-술 한잔 할 만한 분위기이다.

줄 골라라. 오늘 밤에 놀아 보자. 내 소피하고 들어오마.”

↳ 애랑에게 거문고를 연주하라고 함.

↳ 방자가 일부러 자리를 피함.

→ 배비장이 자루에서 나와 궤로 이동하는 이유

하고, 문밖에 나와 서서 기척 없이 귀를 기울이고 엿듣는다.

배비장 자루 속에서 가만한 소리로 하는 말이,

『“여보오, 궤자(厥者)가 거문고를 좋아하는 수가 분명 내어 볼 듯하니, 다른 데로 나 이사 좀 시켜 주오.”』

↳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궤자=방자

『: 방자가 자루를 열어 볼 것이라 생각한 배비장이 여인에게 이사를 부탁함.

저 여인 거동 보소. 윗목에 놓인 피나무 궤를 열고,

↳ 판소리 사설 문체(‘~보소’)

“예나 바빠 드시오.”

배비장 궤를 보고 『문자는 놓지 아니하고 쓰던 것이었다.

“체대궤소(體大櫃小)하니 하이은신(何以隱身)고?”』

↳ ‘몸은 크고 궤는 작으니 어떻게 몸을 숨길 수 있겠소?’

『: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문자를 쓰는 현학적 태도 → 인물의 허위(허세)의식 비판②

저 계집 하는 말이,

“그 궤가 밖으로 보기는 적사오나 속이 널러 은신할 만하니 잔말 말고 바빠 드시오.”

배비장 하릴없이 궤 문 열고 두 눈 감고 들어가니, 굽도 접도 못하여서 몸을 곱송그리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설운지고. 이놈의 흥계를 누가 알리. 날 같은 호색 남자 궤 중에 고혼 되기로 누구를 원망하리.’

↳ 죽을 위기에 처하여 후회만 하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드러냄.

저 여인 궤 문 닫고 쇠 채우니, 함정에 든 범이요 우물에 든 고기로다. 답답 궤 중 어찌 살리. 이렇듯 자탄할 제 저놈이 다시 들어오며 하는 말이,

↳ 편집자적 논평

“아무것도 흥항 없다. 내 아까 눈이 절로 흐르르 감기면서 꿈을 꾸니 백수노인이 나를 불러 이르되, 네 집의 거문고와 피나무 궤

‘궤를 불에 소화하’라는 방자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인물. ↳

가 있느냐 하시기로, 내 말이 있노라 한즉, 그 노인 가로되 금신(金神)이 혈입궤중(穴入櫃中)하여 무수작란(無數作亂)하니 그 궤

도교나 음양도(陰陽道)에서, 제사를 모시는 신의 하나. 방향을 지배하며 재앙을 ↳

↳ 궤 안의 구멍으로 들어가 무수한 난리를 일으키니

불러일으키는 신으로, 이 신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길을 떠나거나 공사를

하거나 혼인을 하면 동티가 난다고 하여 꺼림.

가 유즉여가망(有則汝家亡)이요 무즉여가흥(無則汝家興)이라. 역력히 현몽하니 저 궤를 불에 소화하리라. 짚 한 동 갖다 불 놓아라.”

↳ 궤가 있으면 집안이 망할 것이요, 궤가 없으면 집이 흥할 것이라.

↳ 꿈에 나타나니

↳ 궤를 불태워 없애려고 함.



작자미상, 「천지왕본풀이」

- 갈래 : 창세 신화, 서사 무가
- 성격 : 의례적, 신화적
- 주제 : 천지왕의 천지 창조와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의 세상 경영
- 대립적 인물 :

소성 옥황태자	이승의 통치자. 태도가 너무나 완강함. 자신의 능력에 자신만만함.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음.
---------	---------------------------------------------------------------------



대성 옥황태자	저승의 통치자. 부드러운 성품. 문제의 원인인 화룡까지 배려하는 고운 성품. 문제 해결을 현명하게 함.
---------	-----------------------------------------------------------

#EBS

해제

이 작품은 제주도 지역의 무속 의례에 전승되는 창세 신화의 하나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초감제 가운데 맨 앞에 열리는 굿거리를 이르는 말로, 이때 불리는 서사 무가를 뜻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의례적 성격과 신화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천지왕과 그 아들 신인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의 내력을 밝히는 내력담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천지왕의 천지 창조와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의 세상 경영

전체 줄거리

옥황상제의 아들 천지왕은 형이자 천계 신인 바라아의 부탁을 받아 서천 꽃밭의 부지로 지상 세계를 찾아낸다. 암흑과 혼돈의 세계였던 지상 세계에 온갖 생명을 만들어 낸 천지왕은 지상의 총맹 부인과 결혼하여 대성 옥황태자(대별왕)와 소성 옥황태자(소별왕)를 낳는다. 두 아들이 성장하자 천지왕은 이승 세계를 대별왕에게, 저승 세계를 소별왕에게 맡기려 하는데, 욕심 많고 시기심 강한 소별왕은 이승 세계를 맡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천지왕이 두 아들에게 업을 부여하여 누가 현명하게 처리하는지 시험한 후 대별왕에게 이승 세계를 맡기려 하자, 소별왕은 뱀과 밀약하여 대별왕을 죽인다. 결국 천지왕은 소별왕에게 이승을 다스리게 하고, 죽은 대별왕에게 저승을 다스리게 하는데, 소별왕이 이승에 내려와 보니 세상의 혼란이 너무 커 대별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대별왕은 화살을 쏘아 하늘에서 해와 달을 하나씩 뽑아내 이승의 혼란을 정리해 준다. 소별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옥황상제의 용서를 받은 후 이승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매진한다.



작자미상, 「천지왕본풀이」

천지왕이 가만히 들어 보니 소성 옥황태자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하여 오히려 지상 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이라. 하지만

↳ 소성 옥황태자의 성격

저토록 강한 의지를 가진 저 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아 주면 대성 옥황태자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따스한 바람이 아니겠는가?”

↳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것

↳ 완강한 방식 = 소성 옥황태자 방식

↳ 온화한 방식 = 대성 옥황태자 방식

하고 생각을 하였다. 천지왕은 미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총맹 부인에게 상의하였다. 마침 총맹 부인이 천지왕에게 해결

↳ 과제

↳ 지상의 존재

책을 마련해 주니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세 가지 업을 부여하고 누가 현명하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하여 그 아들에게 이승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 천지왕은 두 형제를 불러 『인(仁), 용(用), 지(知) 세 단어를 주고는 인간들을 도록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두 마리의 흑룡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 오도록 하였다.』

↳ 지상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지녀야 할 덕목 『』: 총맹 부인이 제시한 해결책

“이러한 과제를 너희에게 내려 주고 삼 일 동안 말미를 주니 해결 방법을 찾아오라.”

두 형제는 삼 일이 지나자 마침내 천지왕의 앞에 나아가 흑룡을 처리한 문제 해결 방법을 고하게 되었다.

먼저 소성 옥황태자가 자신만만하게 이르기를, - 소성 옥황태자의 성격

『“천상천하의 최고신이며 지고의 모든 힘을 지니신 아버지여. 저는 우선 흑룡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내고

↳ 더할 수 없이 높음.

↳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만 봄.

(知), 무슨 무기를 쓸 것인지(用)를 결정하여 번개와 같이 그 괴물을 처치함으로써 아버의 통치가 인(仁)의 시대가 되도록 하였습시다.”』 『』: 소성 옥황태자가 지(知)와 용(用)을 활용하여 인(仁)을 이룸. ↳ 흑룡

이 말을 듣고 천지왕이 만리경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 흑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곳의 인간들이 소성 옥황태자의 은혜를 칭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소성 옥황태자를 높이 칭찬하고 다시 대성 옥황태자에게 물었다. ↳ 소성 옥황태자의 문제 해결 결과

“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하였느냐?”

『“예. 저는 장차 화룡이 인간 세상의 모든 액운을 막아 내는 큰 인물로 사용될 수 있다(用)고 판단하여 화룡의 아픈 곳과 그렇게 사

↳ 흑룡 → 충신이 될 존재로 봄.

람들을 해하는 이유를 찾아내어(知) 그를 아버의 나라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어서 장차 아버의 어지심과 인자하심이 천상천하에 가득하고 태평성대를 여시는 데(仁)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였나이다.”』

『』: 대성 옥황태자가 화룡의 ‘용(用)’을 고려한 후, ‘지(知)’를 활용해 ‘인(仁)’을 이룸.

천지왕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만리경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 삼라만상이 모두 천지왕의 인자하심과 성스러움을 찬양하고 천지왕의 공덕을 찬양하니 사해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 대성 옥황태자의 문제 해결 결과

“옳거니. 그래 대성 옥황태자 너의 해결 방법이 참 곱기도 하였도다. 너의 현명함이 천하를 구하는구나.”

↳ 대성 옥황태자의 해결 방법을 더 높이 평가함.

다 이긴 것으로 생각했던 소성 옥황태자는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창피한 마음에 자리를 뜨고 말았다. 천지왕은 대성 옥황태자를 물리시고 총맹 부인과 마주하여 자신의 결정을 말한다. 소성 옥황태자는 자기가 이번에 꼭 이승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아버와 어미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그러나 총맹 부인 역시 대성 옥황태자 편을 들자 소성 옥황태자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 소성 옥황태자가 음모를 꾸미게 되는 계기

어느 날 소성 옥황태자는 지상의 서역 끝 뜨거운 사막에 살고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뱀을 찾아가서는 뱀과 은밀한 밀약을 한다.

대성 옥황태자를 죽이는 자객. 소성 옥황태자의 조력자 ↳

『“내가 만약 너의 청을 들어 대성 옥황태자의 숨을 끊어 놓는다면 내 너에게 숲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라.”』 『』: 밀약 내용

↳ 권세와 능력

이 말을 들은 뱀은 크게 동하여 기꺼이 이 일을 맡아 한다. 깊은 밤이 되자 소성 옥황태자는 뱀에게 명령하여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게 한다. 뱀은 굳히 잠들어 있는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서는,

“내 주인이신 소성 옥황태자께서 나를 없애 나라의 액운을 막고자 함이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선뜻 내놓거라.”

하며 가슴을 물어 독을 퍼트린다.

크게 괴로워하며 죽어 가던 대성 옥황태자는 어깨에 있는 청색별을 뽑아 들고 뱀의 몸을 쳐 낸다. 뱀은 다리가 잘리고 겨우 침실을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하여 숲으로 숨었다. 다음 날 대성 옥황태자의 죽음을 안 천지왕은 그 아들이 오장육부를 오려 내는 통증과도 같았다. 천지왕은 그 슬픔을 누르고 지붕 위로 천군신장을 오르게 하여 옥황상제와 대천제에게 아들의 죽음을 고하게 하시고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을 호출하여 사건 조사를 명하였다. 이때 낸 법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망자의 혼을 세 번 부르면서 겉옷을 흔든게 하였다. 한편 대성 옥황태자의 인덕에 감화하여 순종하게 된 흑룡은 자신이 향후 모든 인간의 위협을 지켜 주는 수

↳ 장례 과정 중 고복(辜復) 의식의 유래



작자미상, 「천지왕본풀이」

호자가 되겠다고 대성 옥황태자에게 약속한다. 이때 낸 법으로 지상의 인간들은 태어나면 자신들의 길흉화복을 청룡과 흑룡에게 의탁하는 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배후 인물은 가려진 채 뱀의 소행으로 결론나자 천지왕께서는 모든 뱀에게 씹든 덥든, 습하건 건

↳ 인간이 길흉화복을 두 용에게 의탁하는 이유 제시 ↳ 소성 옥황태자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음.

조한 곳이건 평생 땅을 기어 다니게 하시고 일 년에 한번씩 허물을 벗으면서 고통을 맛보게 하시었다. 이때부터 뱀은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늘 몸통으로 땅을 비벼 가며 움직이는 법이 생겨났다. 천지왕께서는 대성 옥황태자를 대신하여 소성 옥황태자에게 이승

↳ 뱀이 다리가 없는 이유와 허물을 벗는 까닭을 설명함. 소성 옥황태자가 이승을 다스리게 됨. ↳

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임무를 내리시고 소별왕으로 명하시었다. 죽은 대성 옥황태자에게는 대별왕으로 봉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저승의 왕으로 명하시었다.

↳ 대성 옥황태자가 저승을 다스리게 됨

#작품의 특징

- 제주도의 무당굿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임.
- 대비적 성격의 인물을 제시하여 갈등을 부각함.
- 인물간의 갈등을 통해 세계의 질서(법)와 이승과 저승의 통치자의 내력을 밝힘.
- 형제간의 대결 과정을 그린 서사를 통해 통치자의 주요 덕목을 드러냄.
- 천지분리신화(天地分離神話)의 한 형태로 천지 분리, 이승·저승의 분치(分治-분리하여 다스림), 복수일월(複數日月-두 개의 해와 달)의 사락(射落-하나씩만 남김), 그 밖에 자연 질서의 정리 등의 화소(話素)가 주내용을 이루고 있음



작자미상, 「박태보전」

- 갈래 : 역사 소설
- 성격 : 사실적
- 배경 : 조선 숙종 때
- 제재 : 박태보의 삶과 사건
- 주제 : 죽기까지 임금에게 충간을 아끼지 않은 선비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그의 삶
- 인물 :

박태보	↔	숙종
숙종의 친국과 위협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간(直諫)하는 충신		직간(直諫)하는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노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림

#EBS

해제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인 박태보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삶을 소설화한 것으로, 조선 왕조의 국가 사적과 자료를 보관, 관리하였던 기관인 장서각에도 소장되었다. 국문 필사본으로 전하며 이본으로는 필사본 「박한림전(朴翰林傳)」이 있다. 제시된 부분은 숙종의 친국과 위협 앞에서 박태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직간을 서슴지 않는 장면이다. 실존 인물의 삶과 사건을 다루어 역사 소설의 성격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으며, 작품 속의 사건들은 『정재집』, 『숙종실록』 등에 서도 찾을 수 있는 만큼 박태보의 사적을 정사적 입장에서 실기처럼 서술해 놓았다.

주제

죽기까지 임금에게 충간을 아끼지 않은 선비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그의 삶

전체 줄거리

숙종 때 박세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태보는 18세에 이조 판서 이경의 딸과 혼인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응교(應敎)의 벼슬에 이른다. 숙종 16년 후궁 장 씨의 계략에 따라 왕이 중전의 생일날 중전 폐위의 전교를 내리자 신하들이 그 불가함을 상소한다. 이에 숙종이 노하여 상소인들을 잡아들이니 박태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간다. 숙종 앞에서도 박태보가 소신을 다해 중전 폐위의 부당함을 직간하자 숙종은 분노하여 박태보를 형틀에 올려놓고 매우 치게 하고 중형을 가하게 하지만, 박태보는 계속 간하며 죽여 달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숙종은 중전을 내치고 박태보를 진도로 정비하는데 박태보는 혹독한 고문에 행동이 나서 유배 가는 길에 죽고 만다. 그 후 숙종은 장 씨의 음모를 알게 되고 크게 뉘우쳐 인현 왕후를 복위시킨다. 숙종은 박태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정경 대부로 추증하고 그 가문을 충신의 가문으로 칭찬하는 한편, 박태보를 위해 서원을 세워 배향하는 것을 허락한다.



작자미상, 「박태보전」

▷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한 하급 관리

도사가 나장을 거느리고 금호문 밖에 나와 크게 소리쳤다. / “집필한 박태보*는 어디 있느냐?”

↳ 의금부 도사(중6품의 벼슬) ↳ 공간

공이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스스로 큰칼을 가져다 쓰고, 망건과 담뱃대를 종에게 주면서, / “이것을 가져다 모친께 드려라.”

↳ 중죄인의 목에 씌우던 형틀

하고 띠와 부채를 소매에 넣는데, 그 몸놀림은 편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며 걸음걸이도 조용했다.

이인엽, 조대수, 김몽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다. ↳ 박태보의 행위 묘사→국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연함.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

“이 무슨 때인가. 자네 어찌 혼자 담당할까. 우리도 당당히 같이 들어갈 것이라.”

박태보 공이 말하기를, / “자네들이 함께 들어갈 의가 무엇인가. 짓고 쓰기는 다 내가 한 것이라.”

하니,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기를,

↳ 상소문 집필

“원정*을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제발 서로 의논하세.” / 하였으나, 박태보 공이 말했다.

“『내 원정은 내가 할 것인데 어찌 의논하리오. 차라리 혼자 죽을지언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하리오. 내 마음은 이미 정하였 으니』 자네들은 염려 마시게.” / 이돈이 소매를 잡고 말했다. ↳ 상소문을 올린 책임을 혼자 지려함.

『: 박태보의 강직함과 굳은 지조

“태보야, 어찌 이리 경솔한가?” / 박태보 공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웃으며 말하기를,

↳ 태보의 안위를 걱정함.

↳ 박태보의 행위 묘사 → 국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연함.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리오. 우습다. 영감의 말이여! 내가 마음을 한번 정하였으니 어찌 죽기를 무서워하 리오.” ↳ 당대 사회의 사대부층이 추구하던 지조를 지킴. → 개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 가치를 표상하는 모습.

하고는 『드디어 들어가니, 국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 공과 이세화 공이 박태보 공의 오는 거동을 보고 말했다.

국청에서 중대한 죄인을 신문하던 일 ↳ 『: 공간 이동

“슬프다! 우리는 벼슬이 높고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한번 죽어서 나라에 은혜를 갚음이 후회될 것 없지만, 자네는 젊고 명망이 있으며 집에 두 노친이 계시니 헛되이 죽는 의리가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 자네, 이제 원정을 잘하여 다 우리에게 미루고 살

↳ 박태보의 행위를 만류하는 이유

박태보의 안위를 걱정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대책 ↳

도리를 생각하시게. 그리하지 않으면 면치 못할 것이니, 원정을 같이 의논함이 어떠한가?”

박태보 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영감께서는 그런 말씀 마옵소서. 제 원정을 어찌 영감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이르러 죽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짜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어찌 변하겠습니까.” ↳ 박태보의 강직한 지조

박태보 공의 말씀과 기운이 더욱 강개하고 정신은 더욱 강렬하니,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 이옥고

▷ 상감(上監). ‘임금’의 높임말

↳ 서술자 개입.(편지자적 논평)

들어가니 문량이 상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문목*을 읽었다.

↳ 공간 이동 ↳ 죄인을 심문할 때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낭관

“상소 중에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설사 내전께서 과실이 있은들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

↳ 왕비의 존칭. 인현 왕후

하고 실제 일로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적발하여 망극한 죄명을 씌운다.’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서로 다투고 서로 핍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한 몸의 사심을 따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며, 비망기로 하교하신 것이 확실한데도 이렇게 꾸민 것은 무슨

↳ 임금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던 문서

까닭이냐? 누가 가르치더냐? 이런 흉한 말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이러한 흉한 상소는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상소 를 주장하여 임금을 배반하고 죄상이 드러난 사람을 위해 절개를 세우고자 하였느냐? 숨기지 말고 바로 아뢰라.”

↳ 인현 왕후

문목을 다 읽으니 상이 나장으로 하여금 어깨에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엄히 물으라 하였다. 박태보 공이 옷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 소리를 조용히 하여 아뢰었다. ↳ 박태보의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

“이미 문목으로 물으시니 바로 아뢰겠습니다.” / 상이 말하였다.

“네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는 부도(不道)를 하였느냐? 네가 어찌 임금이 한 말을 허망하다고 하느냐?”

“신이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은 내전께서 비록 언어에 과실이 있으나 적발하여 큰 죄를 주심이 마땅하지

↳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자기를 낮추는 말

↳ 왕비에게 잘못은 있지만 큰 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변호함.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치우쳐서 집안 다스리기를 잘못하여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혹 그러하실까 싶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왕의 말을 허망하다

↳ 희빈 장씨

『: 항간에 실제로 일어난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일을 언급하며



작자미상, 「박태보전」

고 하오리까.” 그런 부정한 일을 임금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이렇게 문목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보 공이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상이 더욱 크게 노하여 죄인을 어좌 가까이 오게 하고는 크게 소리쳐 하교하였다. ↳ 박태보의 당당함.
↳ 임금이 앉는 자리 ↳ 인현 왕후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첩을 총애하다가 참소를 믿어서 죄 없는 내전을 폐한다는 말이나. 그러면 나는 죄 없 ↳ 회빈 장씨 ↳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바침. 무고(誣告) ↳
 는 자를 고발한 이광한같이 되는구나.” / 상이 또 말하였다.
 “조그만 놈이, 전에도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던 놈이 네놈 아니냐.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하였으나 특별히 분노를 참아 네 머리를 베지 않았더니, 오늘 또 네가 나를 욕보이는구나.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 / 박태보 공이 아뢰었다. ↳ 인현 왕후 『』: 박태보가 임금의 잘못에 문제를 제기한 일
 “군신과 부자는 의가 똑같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임금과 아버지가 비록 같지 않지만 총과 효는 다름이 ↳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군신 간에도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음.
 없습니다. 아비가 만일 어미를 내치면 자식 된 자로서 간하겠습니까, 순순히 듣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 ↳ 숙종 ↳ 인현 왕후 ↳ 박태보 인현 왕후를 내치는 일 ↳
 을 하셔서』 중궁께서 장차 기울어지게 되니 신하 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 전하를 『충신으로서 임금의 불의한 행위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함. 충신의 진정한 도리를 밝힘. ↳
 배반하옵고 중궁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중궁을 위한 것이 곧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러한 독한 물건은 바로 베어도 안 될 것이 없다. 원정을 받지 않을 것이니 바로 엄한 형벌을 내리라.” ↳ 박태보

하니, 우의정 김덕원이 아뢰었다.
 “원정을 받지 않고 때리기를 먼저 하면 나중 폐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 상이 말하기를,
 ↳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길 폐단에 대한 우려
 “이런 흉물을 두고 문초하여 진술 바기를 어찌 기다리겠는가. 어서 엄하게 형벌을 가하라.”
 ↳ 충간을 한 박태보를 비난하는 표현

하고, 판의금부사를 불러 하교하였다.

*박태보: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사간원 정언, 이천 현감, 파주 목사 등을 지냄.
 *원정(原情): 사정을 하소연함.
 *문목: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작품의 특징

- 박태보와 임금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함.
- 인물의 행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
- 주인공이 이동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긴박감이 강화됨.
-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순행적으로 서술됨.
- 실존 인물인 박태보의 삶과 사건을 소재로 삼아 소설로 형상화함.
- 사대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모색하여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지어짐.



작자미상, 「운금루기(雲錦樓記)」

- 갈래 : 한문 수필, 기(記)
- 성격 : 비판적, 예찬적
- 제재 : 운금루
- 주제 :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대한 새로운 인식

#EBS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시대 이제현이 지은 기(記) 형식의 수필이다. 글쓴이는 ‘운금루’라는 누각을 통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궁벽한 곳에만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며, 도회지 근처에도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곳이 얼마든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구성

- ▶ 처음: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
- ▶ 중간: 권렴이 지은 운금루의 위치와 특징
- ▶ 끝: 운금루를 지은 권렴에 대한 평가



작자미상, 「운금루기(雲錦樓記)」

『올라가 볼 만한 산천의 경치는 반드시 모두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자(王者)의 도성이나 대종이
↳ 매우 후미지고 으스스하다 『: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

↳ 올라가 볼 만한 산천의 경치로, 통념에서 벗어나 도성이나 도회지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
모인 도회지에도 본래 좋은 산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명성을 노리는 사람은 조정에,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시장에 묻혀, 비록
↳ 가까운 곳 ↳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① ↳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②

형(衡)·여(廬)·호(湖)·상(湘)이 굽어보고 쳐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널려 있어 장차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 중국의 형산과 여산, 동정호와 소상강을 일컫는 말로 중국 내에서도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
→ 가까운 곳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당시의 세태 비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슴만 쫓느라 산을 보지 못하고, 돈만 움키느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은 살
↳ 아름다운 경치가 가까운 곳에 있음. ↳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 대립적 이미지로 사용.(사슴, 돈, 아주 작은 것↔산, 사람, 수레의 짐)→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모습
피면서도 수레의 짐은 보지 못하니, 이는 마음에 쏠리는 일이 있어 눈이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일을 좋아하는 세
↳ 사슴, 돈, 아주 작은 것 →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 ↳ 산, 사람, 수레의 짐 →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

력 있는 사람들은 관(關)을 넘고 진(津)을 건너 터를 잡고는 산수놀이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고매(高邁)한 체하지만, 강락(康樂)
↳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③ ↳ 가까운 곳에 좋은 산천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멀리 떠나는 모습을 비유함.

이 길을 내자 주민들이 놀랐고, 허사(許汜)가 집터를 묻자 호사(豪士)들이 꺼렸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도리어 고매하다.
↳ 고사를 인용하여 강락과 허사와 같이 스스로 고매한 척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 강락은 중국 송나라의 인물로, 경치가 좋은 곳을 보러 가기 위해 길을 닦
으니 백성들이 놀라 도적이라 하였다 함. 허사는 중국 삼국 시대의 인물로, 호사(豪士: 호방한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박대한다고 비난하
자 유비는 허사가 나라에 충성할 마음 없이 농토나 구하고 집터를 묻고 다니기 때문이라며 그를 비난하였음.

서울 남쪽에 너비가 1백 묘(畝)쯤 되는 못이 있는데, 『살림하는 여염집들이 빙 둘러 있어 즐비하고, 이거나 지고 타거나 걸어
↳ 논밭 넓이의 단위. 1묘=약 99.174㎡ ↳ 일반 백성의 살림집

↳ 왕래가 잦아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다.
그 옆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앞뒤에 연락부절한다.』 어찌 뛰어난게 그윽하고 흰칠하게 넓은 지역이 이 안에 있을 줄 알라? 후
『: '못'의 위치→가까운 곳임 ↳ '못'의 모습 ↳ 도성 안

(後) 지원(至元) 정축년 여름 연꽃이 만발했을 때에 현복군(玄福君) 권렴(權廉)이 보고는 사랑하여 바로 못 동쪽에 땅을 사서 누
↳ 고려 충숙왕 6년(1337년) ↳ 구체적인 인명 언급.

↳ 기둥 밑에 괴는 돌 따위의 물건
각을 세웠다. 『높이는 두 길이나 되고, 연장(延長)은 세 발(丈)이나 되는데, 주추가 없이 기둥을 마련하였음은 썩지 않도록 한
↳ 운금루 ↳ 물건의 길이나 걸여간 거리 따위를 일괄하였을 때의 전체 길이.

것이요, 기와를 덮지 않고 띠로 이었음은 새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서까래는 다듬지 않았지만 굽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으며,
운금루에서 볼 수 있는 풍경. 통념에서 벗어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서울 안의 아름다운 경치 ↳
벽도는 단청(丹靑)하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대략 이려한데, 온 못의 연꽃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 옛날식 집의 벽, 기둥, 『: 구체적 수치와 누각을 이루는 요소들을 언급하며누각의 모습을 묘사함.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다.

이에 그의 아버지 길창 공(吉昌公)과 형제·인아(姻婭)들을 초청하여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며 화평하고 유쾌하게 놀아 하루해가
↳ 사위의 아버지와 사위 상호 간, 곧 동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지는데도 돌아갈 줄 몰랐는데, 대자(大字)를 잘 쓰는 아들이 있으므로 '운금(雲錦)' 두자를 쓰도록 하여 누각 이름으로 걸었
다. ↳ 구름 비단

나는 한번 가 보니 『향기로운 붉은 꽃과 푸른 잎의 그림자가 가없이 펼쳐져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흔들리며, 연기 낀 파도에 일
↳ 글쓴이의 경험 제시

렁이어 소문이 헛되지 않다고 할 만했다. 어찌 그것뿐이라? 푸르른 용산(龍山)의 여러 봉우리가 처마 앞에 몰렸는데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이면 매양 형상이 달라지며, 건너편 여염집들의 집자리 모양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며, 지거나 이고 타거나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운금루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함.

걸어 왕래하는 사람들 중의 달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돌아다보는 사람, 손짓해 부르는 사람과 친구를 만나자 서서 이야기하
는 사람, 존장(尊長)을 만나자 달려가 절하는 사람들이 또한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없어 바라보노라면 즐겁기 그지없다. 『저쪽에
↳ 누각(운금루)에서 풍경을 보는 즐거움①, 운금루가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서는 한갓 못이 있는 것만 보이고 누각이 있음은 알지 못하니, 또한 어찌 누각에 있는 사람을 알겠는가? 진실로 올라가 구경할
↳ 누각(운금루)에서 풍경을 보는 즐거움②,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즐길 수 있음. ↳ 등잔 밑이 어둡다.(속담)

만한 경치가 반드시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조정이나 시장에만 마음이 쏠리고 눈이 팔려 우연히 만나



작자미상, 「운금루기(雲錦樓記)」

면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것이며, 또한 하늘이 만들고 땅이 숨겨 경솔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 세속적 이익, 명예만을 좇느라 가까운 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함.(설의)

↳ 일반 호의 백성이 사는 영지를 가진 제후라는 뜻으로, 세력이 큰 제후를 이르는 말

권력은 허리에 만호후(萬戶侯)의 병부(兵符)를 차고 외척(外戚)의 권세를 누리면서, 나이는 아직 옛날 강사(强仕)하던 나이가

↳ 어머니쪽의 친척

↳ 40세. '강사(强仕)'는 『예기(禮記)』 「곡례(曲禮)」편에 "나이가 사십이 되면 건장한 시기라

벼슬길에 나간다."라고 한 데서 40세를 가리키는 말로 쓰임.

채 못 되니, 부귀와 이록(利祿)에 빠져도 취하기 십상인데도 『능히 인자(仁者)와 지자(智者)들이 좋아하던 바를 좋아하며, 주민

↳ 이익과 녹봉

↳ 중국 노나라의 공자는 자신이 지은 『논어』 <옹야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였음.

들에게 놀라움을 주지도 않고 호사(豪士)들에게 꺼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뛰어나게 그윽하고 흰칠하게 넓은 지역을 시

↳ 강략

↳ 허사

장이나 조정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내어 소유해서 아버이를 즐겁게 하고 손님에게까지 미치

『: 고사를 인용하여 속세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권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까지 미치니, 이야말로 가상하다. 익재 거사(益齋居士) 아무는 기한다.

착하고 기특하다. ↳ 글쓴이 이제현의 호 ↳ 글쓴이 이제현 ↳ 어떤 것을 써 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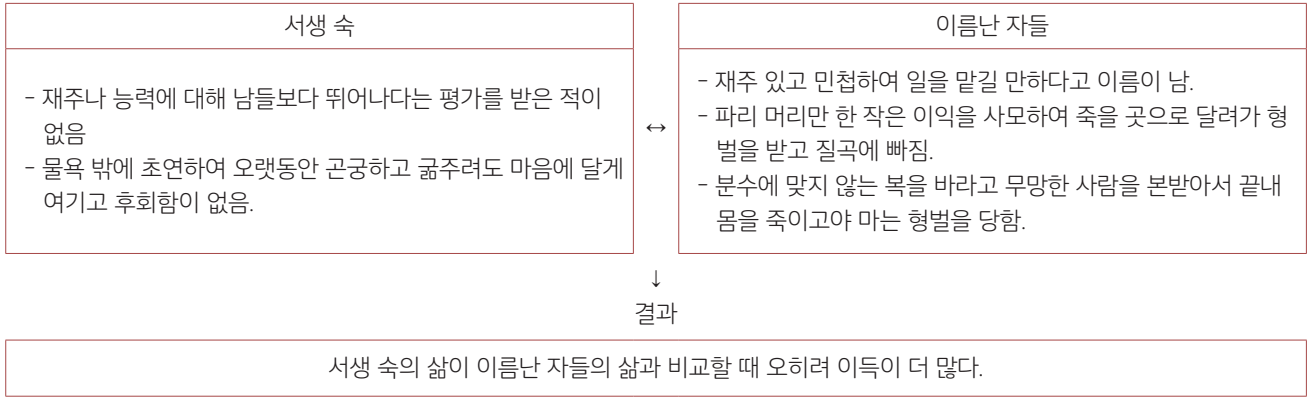
#작품의 특징

- 구체적인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예찬적 태도 드러냄.
- 글쓴이의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전달함.
- 통념을 반박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냄.
- 고사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 비유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 대상에 대한 묘사가 뛰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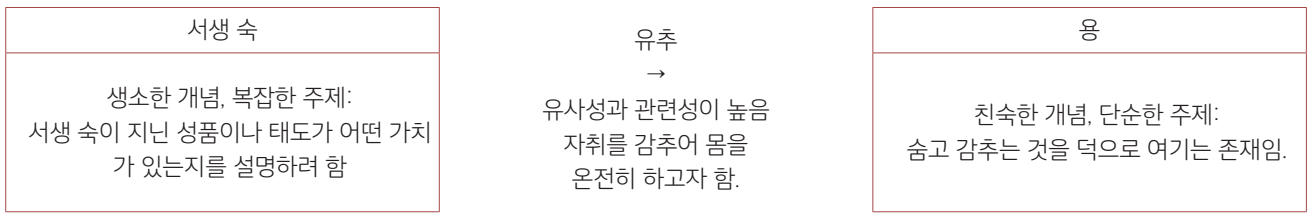


남구만, 「용암정기(龍巖亭記)」

- 갈래 : 한문 수필, 기(記)
- 성격 : 교훈적, 유추
- 제재 : 용암정
- 주제 : 용암정을 지은 서생 속에 대한 칭찬과 조언
- 대조 :



- 유추 :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문인 남구만이 지은 한문 수필로, 기(記)에 해당한다. 누각이나 정자를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명승고적을 관람할 때를 기념하여 쓴 대각명승기의 일종이지만, 서생 속이 지은 정자, 용암정의 신축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기보다는 서생 속의 인물됨을 드러내며 그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용암정을 지은 서생 속에 대한 칭찬과 조언

구성

- ▶ 처음: 서울에서 생장하고 글쓴이에게서 글을 배운 서생 속이 가평 조종현에 '용암정'이라는 정자를 지은 후 글쓴이에게 기문을 지어 달라고 요청함.
- ▶ 중간: 물욕 밖에 초연하여 비록 오랫동안 곤궁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었던 서생 속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용암정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는 용처럼 할 것을 권하는 글을 지어 줌.
- ▶ 끝: 서생 속이 이 글을 받아 용암정 기문으로 삼음.



남구만, 「용암정기(龍巖亭記)」

서생 숙이라는 자가 서울의 변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성장하였으나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여 물건을 사고팔아 이익을

↳ 서씨 성의 생원 ↳ 서생 숙이 나고 자란 곳 소개 ↳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음.

남기는 것과 가산의 유무(有無)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으며, 장기와 바둑, 오만함과 방탕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문
을 달고 책만 읽을 뿐이었다.』 『: 서생 숙의 인물됨.-속물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며 소박한 성품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였고, 또 황제와 기백의 의술을 익혀서 다소 그 의취를
↳ 글쓴이인 '나'와 사제 관계였음.

알았는데,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 종사한 지가 10여 년이 되어 절충장군의 품계를 얻었으

↳ 의학에 관심이 있었으나 당시 분위기에 따라 의사가 되지는 못함. ↳ 문인이 아닌 무인으로 벼슬을 함.

나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개연히 탄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고, 의술을 배웠으나 통달하지 못했고, 군문에서 일하였으나 또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세었으며 지기(志氣)가 저하되어 당세에 써먹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넓고 조
용하고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요하면서 제 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가평의 조종현 비령산 아래

↳ 용암정 위치

에 살 곳을 정하니, 이곳에는 큰 냇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두 뿔이 우뚝 솟아 꿈틀꿈틀하여 마치 물을 마시는 용 모양과 같
으므로 용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짓고 마음대로 구경하며 회포를 부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 용암정 주변 묘사 ↳ 용암정 ↳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도 못하고 무예를 잘하지도 못하여 한 사람의 곤궁한 늙은이일 뿐이니 이곳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 명승

↳ 겸손한 태도

지로 일컬어지게 할 수가 없으며, 이곳 또한 『궁벽한 산중의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며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
과 일사(逸士)들이 놀고 감상할 장소가 될 수 없으니』. 진실로 시부(詩賦)에 읊조리고 문장에 나타내어 후세에 전할 만하지 못합

↳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선비 『: 자신의 거처를 자랑하려 하지 않음.

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군자라 하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

↳ 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냄. ↳ 갈등 없이 살기 바라는 마음을 드러냄.

앗으려고 다투지 않는 곳을 고요하고 한가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땅도 저
를 만난 것을 꼭 불행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니, 공은 저를 위하여 용암정 기문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 글쓴이와 서생 숙이 만난 이유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글쓴이

“그리고말고.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몽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내가 병조 판서를 맡았을 때에 그대도 편비가 되었는데
대장을 보좌하며 부대를 지휘하던 장수”

.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는 재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이름나 그대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많았다. 그

↳ 서생 숙과 대조되는 인물들

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행을 평소 살펴보면 혹은 파리 머리만 한 작은 이익을 사모하여 죽을 곳으로 달려가 형벌을 받
고 절곡에 빠진 자가 있으며, 혹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무망한 사람*을 본받아서 끝내 몸을 죽이고야 마는 형벌을 당한
자도 있다. 그런데 오직 그대만은 홀로 물욕 밖에 초연하여,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 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곤궁하고 굶주려

↳ 서생 숙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임. ↳ 서생 숙의 삶의 결과

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지난날 재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이름났던 자들에게 비한다면 그 득실이
어떠한가? ↳ 설의적 표현. 서생 숙이 더 득이 많음을 강조.

내 들으니 『용이라는 물건은 본래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혹은 깊은 못 속에 칩거하고 혹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려 있
↳ 서생 숙을 용에 빗댄. ↳ 밖으로 나가 활동하지 않고 입안에만 있음.

으며, 또 혹은 변하여 복이 되고 사람의 손톱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바*, 이는 모두 자취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 용의 변화무쌍함과 작은 곳에도 기거할 수 있는 특성 강조 ‘은거’를 주체적으로 선택함.→서생 숙을 ‘용’에 빗대는 유사성”

라 한다.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복 같고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

↳ ‘용’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속성을 ‘서생’이 지닌 가치로 확장함. 『: 유추.

정자에 올라 바라볼 때에 산천이 두 손을 마주 모아 읊하는 듯한 형세와 마주치게 되며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말할 만한 것이 없고,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또 어찌 그대에게 보탬이 되겠

↳ 용암정의 경치에 대해 세간에 알려진 바 ↳ 용암정을 아직 가 보지 못하였음. ↳ 용암정의 경치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님을 밝힘.

는가.”



남구만, 「용암정기(龍巖亭記)」

서생이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이것을 써서 용암정 기문으로 삼는 바이다.

- * 고습과 도검: 고습은 군복의 아랫도리를, 도검은 두 종류의 병서를 이르는 말로, 병법에 조예가 깊음을 뜻함.
- * 무망한 사람: 무망은 의외(意外)와 같은 말로,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사람을 이룸.
- * 용이라는 물건은 ~ 하는 바: 선율사라는 사람이 손톱을 치니 흑룡 한 마리가 손톱 속에서 나와 날아갔다는 고사를 빌려 옴.

#작품의 특징

-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교훈을 전달함.
- 대조적 삶의 방식과 결과를 제시해 특정 인물의 삶을 예찬함.
- 두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유추가 활용됨.
- 설의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작자 미상, 「운영전(雲英傳)」

- 갈래 : 애정 소설, 몽유록계 소설
- 성격 : 비극적, 염정적
- 배경 : 시간-조선 초기~중기, 공간-한양 수성궁, 천상계
- 제재 :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
- 주제 :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 / 궁녀의 비극적인 사랑
- 인물과 갈등 :

찬성		반대
자란: 옥황상제에게 지은 죄를 씻기 위해	↔ 소격서동으로 소풍 제안	소옥: 무뢰한들에게 욕을 당할까 봐 부용: 순리, 충, 신의 등에 어긋나서 보련: 다른 궁녀들의 말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서 금련: 수치스럽고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길까 봐

- 운영전의 구조: 액자형 구조

	외화	내화	외화
내용	유영이 꿈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남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꿈에서 깬 후 자취를 감춤.
시점	유영의 관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운영과 김 진사의 관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유영의 관점 - 전지적 작가 시점

#EBS

해제

이 작품은 궁녀와 선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는 소설로, ‘수성궁 몽유록’, ‘유영전’으로도 불린다. 몽유록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액자 구조가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며, 이야기에 따라 서술자가 교체되는 점과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 등이 다른 고전 소설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의 사랑이 신분 제도에 의해 억압받는다라는 점에서 당대의 신분 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 / 궁녀의 비극적인 사랑

전체 줄거리

임진왜란 직후 ‘유영’이라는 선비는 안평 대군의 사저였던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취몽 중에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그들에게 두 사람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13세에 궁녀로 입궁한 운영은 안평 대군을 찾아온 김 진사라는 선비를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시를 전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다른 궁녀들과 김 진사의 하인인 특의 도움을 받아 수성궁의 담을 넘나들며 더욱 깊어 간다. 운영이 지은 시에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안 안평 대군은 이를 추궁하고, 운영은 궁을 탈출하고자 하지 만 김 진사의 하인 특의 배신으로 두 사람의 밀회는 탄로 난다. 운영은 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김 진사 역시 따라 죽는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유영은 그들이 기록한 책자를 들고 돌아와 감추고 산천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마침은 알 수 없다.



작자 미상, 「운영전(雲英傳)」

[앞부분의 줄거리] 남궁에서 생활하던 궁녀 열 명 중 운영과 자란을 비롯한 궁녀 다섯 명이 안평 대군의 명으로 서궁으로 옮긴다.

↳ 운영의 조력자

↳ 세종 대왕의 셋째 아들

이로 인해 운영은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길이 없어지고, 자란은 빨래를 빌미로 궁 밖으로 소풍을 가는 행사 때, 무녀를 만나

↳ 운영의 연인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하는 꾀를 낸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남궁의 궁녀들은 장소 문제로 서궁 궁녀들과 다투고, 자란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홀로 남궁을 찾는다.

↳ 소풍 장소로 인한 갈등

“사실은 서궁 사람들 다섯 중에 소격서동으로 가자는 것은 나 혼자뿐이란다.”

“그래, 그건 또 무슨 까닭이냐?”

↳ 자란

“내가 들어 보니 소격서동은 바로 옛날 옥황상제께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달리는 삼청동이라고도 부른다. 아마도 우리 열 명 서궁과 남궁의 궁녀들”

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삼청궁에서 선녀로 살다가 실수로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을 것이다.

속세에 쫓겨 온 이상 인간 세상 어디서 살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깊고 깊은 궁궐 속에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갇히게 되었으니,

↳ 궁녀들의 억압적인 삶의 모습

나는 『피꼬리 울음만 들어도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두고도 한숨을 짓고 쌍쌍이 나는 제비, 마주 앉아 졸고 있는 산비둘기만 보아도 외로워진다. 들의 풀에도 함환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양이 있어

음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물

음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물

『: 자신 처지와 대비되는 사물들을 나열 → 인물의 외로운 심정 부각

거움을 나누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그렇게도 커서 적막한 궁궐 속에 숨어 꽃 피는 봄과 달 뜨는 가을에 등불만 벗어나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썩혀야 한단 말이냐? 인생이란 한번 늙고 나면 다시는 젊어지지 않는 것이니, 생각만 해도 슬픔이 가슴을 비집고

↳ 인간 본연의 삶을 억압당하고 있는 부조리한 궁녀들이 삶

러내린다. 이제 일 년에 한 번뿐인 이런 좋은 때를 맞아 맑은 시내에 가 몸을 깨끗이 하고 옥황상제를 모신 태을사에 들어가

↳ 궁 밖으로 소풍을 가는 행사

자란이 소격서동을 소풍 장소로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

리가 땅에 닿도록 백 번이라도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빌고 빌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니? 그런 뜻으로 내가 소격서동을 고집한 것이지 여기에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니? 우리 열 명은 자매처럼 정을 나누며 지내 왔는데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해서야 쓰겠니? 내가 까닭 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란다.” / 시비를 걸려던 소옥은 오히려 자란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시다.

“내가 이치에 밝지 못해 네 생각에 못 미쳤구나. 내가 서궁 사람들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그 근처에는 무뢰한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욕을 당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란다. 이제 네 고귀한 뜻을 알았으니, 이후로는 비록 맑은 대낮에 구름

↳ 소옥이 소격서동을 반대한 이유

극단적인 상황 제시→자란이 하려는 일에 대한 소옥의 믿음 강조

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뜻을 따를 것이며 강이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를 따르리라.”

“무릇 일은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난번 말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 두 사람이 밤새도록 논쟁을 벌이고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순리에 따르지 못한 것이요,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군께 알리지 않고 첩들끼리 몰래 모의한 것은 충(忠)에 어긋나는 것이며, 낮 동안 다투던 일을 밤이 채 반도 지나기 전에 바꾼 것은 신의를 잃는 것이다. 게다가 가을에는 옥같이 맑은 물이 없는 곳이 없거늘 제단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격서동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구나. 또 비해당 앞은 물이 맑고 돌도

↳ 남궁의 궁녀들이 소풍을 가고자 한 곳

깨끗해 작년에도 거기서 빨래를 했는데 왜 새삼스레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 부용이 자란의 뜻에 반대하는 근거들(열거)

부용이 두 사람에게 불만을 보이며 하는 말이었지요. 보련 또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다들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한

↳ 자란과 소옥

↳ 서술자인 운영의 주관적 생각.

궁녀들이었으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하는 바늘과 같은 것이다. 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화도 생기고 복도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예로부

↳ 말의 신중함을 비유적으로 강조.

터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이라고 했다. 내가 옆에서 너희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자란의 말에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고 소

↳ 보련이 행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옥의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고 부용의 말은 말을 꾸미는 데만 힘을 쓰고 있으니 어느 것도 내 뜻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번 행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 옆에 금련이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의논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알아보지.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금련은 말끝을 흐리며 주역을 펴 놓고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한 괘를 얻어 괘 풀이를 하였지요.



작자 미상, 「운영전(雲英傳)」

“내일 운영은 반드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운영은 얼굴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 대군께서 오랫동안 운영에게 마

↳ 앞일에 대한 예언

음을 기울였으나, 운영이 대군의 부인을 생각하여 죽음으로 거역하고 있고, 대군 또한 자칫 운영의 몸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운영이 쓸쓸한 곳을 버리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 하니 장안의 활달한 소년 선비들이 그 미모를

↳ 궁궐안

↳ 궁궐밖

보고는 녀를 잃고 미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요, 비록 가까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눈짓을 보낼 것이니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전에 대군께서 명령하시기를 궁녀가 문을 나가거나 바깥사람이

↳ 금련이 행차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이유

↳ 안평대군이 억압적 봉건 질서를 대변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음.

궁녀의 이름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나 또한 이런 행차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자란은 일이 그르친 것을 알고 상심하여 어두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요. 그런데 비경이 올면서 허리를 안고 억지로

↳ 남궁의 궁녀

붙잡아 앉혔지요. 그리고는 앵무 술잔에 술을 따라 자꾸 권하였지요. 다른 궁녀들도 다들 술잔을 잡았지요. 서로 다투기는 했어도 가슴 저편에 숨은 슬픔이 서로를 전염시켰던 것이겠지요.

↳ 서술자인 운영의 주관적 생각.

#작품의 특징

- 대비되는 자연물을 나열하여 인물의 처지를 부각함.
-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함.
- 액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외화에 따라 서술자가 교체됨.
- 궁중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배경으로 함.
- 궁녀라는 신분으로 인간의 본원적 욕망이 억압 받음.
- 신분 제도로 인한 비극적 결말이 나타남.
-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
- 자유 연애 사상이 드러남.
- 작품 전체를 참고할 때, 삽입시를 통해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면서, 사건을 전개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함.



작자 미상, 「심청가」

- 갈래 : 판소리계 소설
- 성격 : 교훈적, 전기적
- 주제 :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 인과응보(因果應報).

#EBS

해제

작중 인물인 ‘심 봉사’는 죽음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마누라’를, 반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해’, ‘꽃’, ‘이슬’, ‘사신’과 대비하여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고, 마누라! 마오, 죽지 마오. 평생의 정한 뜻을 사생동거(死生同居) 보셨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가라시오? ... (중략)... 해도 졌다 다시 돌고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하늘이 장천구만리로되 삼경이 되면 이슬 오고 북경이 머다 해도 사신 행차가 왕래헌디 마누라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디 구차히 사자거늘 누굴 믿고 살어나며 동지(冬至) 대한(大寒) 긴긴밤을 찻 먹고

↳ 심 봉사의 아내와 대비되는 대상(반복과 회귀의 속성을 지님) ↳ 의로이 홀로 지내야 하는 심 봉사

자 우는 자식 뉘 찻 맥여 길러 낼까?

#작품의 특징

- 대비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처한 상황을 강조함.
- 조화를 이룬 자연과 인물의 결핍이 대비를 이룸
- 자아가 외부의 세계와 대비를 이루는 주객 대비 구도가 나타남.
- 인물의 말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냄.



작자 미상, 「발승암기」

- 갈래 : 한문 수필 기(記)
- 제재 : 김홍연의 삶
- 주제 : 왈짜 김홍연의 삶과 이름의 덧없음.

#EBS

해제

연암 박지원이 쓴 이 글은 실존 인물인 '김홍연'에 대해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김홍연은 방탕하고 세속적인 인물로, 젊은 시절에는 벼슬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돈을 물 쓰듯 하였으며, 늙어서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산을 올라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며 일생을 보냈다.

『어떤 이가 본래 김홍연의 행적을 잘 알아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에 의하면』 김은 곧 왈짜였다. 왈짜란 대개 여항의 허랑방탕

↳ '발승암'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로 실존 인물 『』 들은 내용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음. 백성의 집이 많이 모인 곳 『』

하고 물질 모르는 자를 일컫는 말로서 이른바 검객(劍客)이나 협객(俠客)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그는 젊은 시절 말타기와 활쏘

↳ 말과 행동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다.

기를 잘하여 무과에 합격했으며, 힘이 세어 범을 때려잡거나 좌우 옆구리에 기생 둘을 끼고 몇 길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쩌쩌하게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이 본래 부유하여 돈을 물 쓰듯 하였고, 고금의 유명한

↳ 김홍연의 '왈짜'다운 모습① 입신양명에 뜻을 두지 않음.

↳ 김홍연의 '왈짜'다운 모습② 허랑방탕하게 삶.

서첩(書帖)과 좋은 그림, 칼이며 거문고며 골동품, 기이한 꽃과 풀 따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혹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천금(千金)을 아끼지 않았으며, 준마(駿馬)와 송골매를 늘 좌우에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늙어 머리가 세었으며, 자루에다 끌과 정을 넣고 다니며 명산에 두루 노니는데, 이미 한라산에 한 번 올랐고 백두산에 두 번 오른바 그때마다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 이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였다.

↳ 김홍연의 '왈짜'다운 모습③ 바위에 새겨 이름을 남기고 싶어함.

#작품의 특징

- 당대 실존했던 '왈짜'의 전형을 보여줌.
- 돈과 인생을 낭비하는 인물의 생애와 그림에도 이름을 남기려는 모습을 통해 '이름의 덧없음'을 드러냄.
-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한 인물의 됴됨이를 드러냄.
- 생소하게 여겨지는 '왈짜'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돈을 물 쓰듯 하던 젊은 시절과 산을 오르며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말년의 시기를 구별하여 그 생활 모습의 차이를 드러냄.
- 인물의 특정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행적들을 배열함.



이옥, 「심생전」

- 갈래 : 애정 소설, 한문 소설
- 성격 : 비극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
- 주제 : 신분제에 가로막혀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
- 인물 :
 - 심생: 양반가의 자제. 자신의 욕망과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사회적 제도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보임.
 - 소녀: 중인 집안의 딸. 지혜로우며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사랑을 성취하나 신분제의 장벽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음.
- 구성에 따른 주제 의식 차이 :

앞부분	뒷부분
중인 소녀와의 사랑을 이루고자 했던 양반가 자제의 이야기	심생의 사랑에 대한 매화외사(작가)의 평
↓	↓
신분제에 대한 비판 의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
 - 자유연애 사상: 심생과 소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연을 성취함.
 - 여성 의식의 성장: 소녀가 자신의 의도를 부모에게 말하는 모습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남.
 - 중인층의 성장: 부를 축적하여 경제력을 갖춘 중인 계층인 소녀의 아버지를 통해 드러남.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소설로, 신분이 다른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다루고 있다. 우연히 만난 소녀에게 반한 심생이 소녀와의 만남을 성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소녀와 인연을 맺게 되지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고 둘은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이 이야기 뒤에 심생의 사랑에 대한 매화외사(작가)의 평이 덧붙여 있는데, 평이 실린 뒷부분의 주제 의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다룬 앞부분의 주제 의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부분은 중인 소녀와의 사랑을 이루고자 했던 양반가 자제의 이야기를 통해 신분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고 있지만, 뒷부분에 실린 매화외사의 평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자신이 연을 맺을 상대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당돌한 소녀의 모습, 부를 축적하여 경제력을 갖춘 중인 계층인 소녀의 아버지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던 당대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으며,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결연을 지지하는 자유연애 사상, 양반가 자제와 중인 소녀와의 혼인도 가능하다는 신분제에 대한 비판도 읽어 낼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신분제에 가로막혀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

전체 줄거리

심생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치고 한순간에 반하여 뒤를 따라가 그녀의 집과 그녀가 중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 후, 심생은 매일 밤 소녀의 집 담장을 넘어 그녀의 방문 앞에서 기다리기를 한 달을 반복한 뒤에 소녀와 어렵게 혼인하게 된다. 그러나 심생은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고, 그의 행적을 이상히 여긴 부모는 그를 북한산 산사로 공부하러 보내 심생과 소녀는 떨어져 지내게 된다. 그러던 중 심생은 소녀로부터 온 편지를 받게 되고, 그녀가 심생을 그리워하다가 끝내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게 된다. 소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심생은 글공부를 접고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지만 요절한다. 이 이야기를 전달한 매화외사는 이 이야기를 12세 때에 시골 학당에서 선생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며 이 내용이 실재한 것임을 밝히고,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로 언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옥, 「심생전」

공장 뒤따라갔으나 소공주동 흉살문 안에 이르러 소녀는 어느 집 중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 전지적 서술자가 심생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함.

↳ 정보 제공자

심생은 멍하니 뭔가 잃어버린 듯이 한참을 서성였다. 그러다가 이웃의 한 노파를 만나 소녀의 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은 호조에서 회계 일을 맡아보다 퇴직한 중인의 집으로,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열네살곱 살에 아직 시집가

↳ 정보 제공으로써의 서사적 장치 - ① 심생에게 소녀의 신분을 알리는 서사적 장치, ② 독자들에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남녀 간의 이야기라는 점을 알리는 서사적 장치

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소녀가 거처하는 방을 묻자 노파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 골목길로 죽 들어가면 회칠한 담장이 나오고, 담장 안을 보면 결방이 하나 있을 거유. 거기가 바로 그 처녀가 거처하는 방이라유.”

심생은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 / 저녁이 되자 심생은 집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 담장을 넘기 전의 심생의 행동① - 일담 사건이 계획적임을 드러냄. ↳ 담장을 넘기 전의 심생의 행동② - 소녀를 향한 마음을 부모에게 비밀로 함.

“같이 공부하는 아무개가 밤을 함께 보내자고 해 오늘 밤에 가 봐야겠습니다.”

마침내 인정(人定)*이 되자 심생은 소녀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옅은 노란색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창밖의 꽃나무들이 꽤

↳ 비밀스럽게 행동하고자 하는 심생의 마음을 나타냄.

↳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한 장면.

나 아담하였고, 등불은 창호지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심생은 벽에 등을 기대 채 처마에 의지하고 앉아 숨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방

↳ 심생의 자세와 위치, 행동을 묘사 → 심생의 조심스런 마음을 드러냄.

안에는 여종 두 사람이 있었고, 소녀는 소리를 낮추어 꼬꼬리가 지저귀듯이 한글 소설을 읽고 있었다. / 밤 12시쯤 되자 여종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고 소녀는 그제야 등불을 불어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전전반측 누군가

『: 소녀가 심생이 온 것을 알고 있음을 암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를 생각하는 성싶었다.』 심생은 감히 잠자지도 못하고 또 감히 소리를 내지도 못하며 그대로 앉아 있다가 파루(罷漏)* 종이 울리자 다시 담장을 기어 넘어 밖으로 나왔다.

심생은 이때부터 이 일이 습관처럼 되어, 날이 저물면 소녀의 집에 갔다가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되풀이했다. 20일 동

심생이 행동하는 시간(인정(人定)~파루(罷漏))을 상세히 밝힘 → 심생이 소녀를 비밀리에 만나고자 함을 강조. ↳

안이나 이렇게 하고도 여전히 게으름 부리는 일이 없었다.

↳ 심생이 소녀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내어 소녀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나타냄.

소녀는 초저녁엔 소설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다가 한밤중이 되면 등불을 끄고 그대로 잠들기도 하고

혹 번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심생이 그런 지 6, 7일째쯤 되는 날, 소녀는 문득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 8시 무렵부터 자리에 누웠다. 소녀는 자주 손으로 벽을 치며 길고 짧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가 창밖까지 들려왔다. 이런 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 20일째 밤이었다. 소녀는 홀연 대청마루 뒤로부터 벽을 따라 돌아 나와 심생이 앉아 있는 자리에 나타났다. 심생은 감

↳ 심생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깊어짐.

↳ 난처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함.

↳ 심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냄.

감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소녀를 붙잡았다. 소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며 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했다.

“낭군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스무 날째 밤이군요. 이 손 좀 놓으셔요. 제가 소릴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어서 제 말대로 하셔요.”

↳ 소녀의 기지. 심생을 안심시켜 심생이 손을 놓도록 함.

심생이 이 말을 믿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빙 돌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종을 불러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좀 가져오너라. 밤이 너무 깜깜해서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섭구나.”

여종이 내당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지고 왔다. 소녀는 심생과 약속했던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고는 손수 열쇠로 딸가닥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채웠다.

↳ 심생과 인연을 맺지 않겠다는 거절의 뜻을 밝히기 위한 행동.

그러고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불어 켰다.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체했지만 실은 잠자지 않고 있었다. 심생은 속은

↳ 심생의 긍정적 성격, 소녀에 대한 깊은 애정

↳ 심생을 거절하였으나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음.

것이 분하면서 그나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날도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다.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그 이튿날에도 갔다. - 소녀가 거절의 뜻을 전했음에도 심생의 뜻이 변치 않았음.

그러나 감히 잠긴 문을 열어 달라고는 하지 못했다. 비오는 날이면 비웃을 입고 갔으며 옷자락 젖는 것쯤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났다.

한밤중이었다. 온 집안이 모두 달게 잠들었고 소녀 또한 등불을 끈 지 오래였다. 그런데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종에게 불을 켜라 이르고 이렇게 말했다.

↳ 소녀가 결심을 바꿈.

“너희들, 오늘 밤은 내당에 가서 자거라!”



이옥, 「심생전」

두 여종이 문을 나서자, 소녀는 벽 위에서 열쇠를 가져다 자물쇠를 풀더니 뒷문을 활짝 열고 심생을 불렀다. / “낭군! 방으로 들어 오세요.”
↳ 심생과 인연을 맺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심생을 받아들이는 행동.

심생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어느새 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었다. 소녀가 다시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했다. / “잠시만 앉아 계세요.”
↳ 심생과의 혼인을 소녀 혼자 결정하고 심생을 부모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침내 내당으로 가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소녀의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녀가 말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나이 열일곱, 그동안 문밖에 나가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집을 나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불어온 바람에 보자기가 걸혀 올라가 마침 초립을 쓴 낭군 한 분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지요.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밤 오셔서 뒷문 아래 숨어 기다리신 게 오늘로 이미 삼십 일이 되었네요. 비가와도 오고 추워도 오고 문을 잠가 거절해도 또한 오셨어요.』 『: 그간의 일을 요약적으로 전달함.

제가 이리저리 요량해 본 지 이미 오래되었답니다. 만일 소문이 밖에 퍼져 이웃에서 알게 되었다 쳐보세요. 저녁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니 누군들 낭군이 그저 창밖의 벽에 기대 있기만 했다고 여기겠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건만 저는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써서 개에게 물린 핏 신세가 되고 마는 거지요. / 저분은 사대부 가문의 낭군으로, 한창나이에 혈기를 진정하지 못하고 『별과 나
↳ 남자와 가까이 한 여인으로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 심생. 관습적 비유

비가 꽃을 탐하는 것만 알아 바람과 이슬 맞는 근심을 돌아보지 않으니 얼마 못 가 병이 들지 않겠어요?』 병들면 필시 일어나지 못
↳ 소녀. 관습적 비유 『: 심생이 사랑을 이루지 못해 상사병에 드는 것을 걱정함.

할 테니, 그리된다면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죽인 셈이 되지요. 남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에 대한 앙갚음을 당하고 말 거예요.

게다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중인 집안의 처녀에 지나지 않지요. 절세의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요, 물고기가 숨고 꽃이 부끄러워할
중인과 사대부라는 신분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 ↳ 아름다운 여인-심생이 생각하는 소녀를 비유

만큼 아름다운 얼굴도 아니잖아요. 그렇건만 낭군은 못난 솔개를 보고는 송골매라 여기고 이처럼 제게 지극정성을 다하시니, 이런
↳ 중국 4대 미인 중 하나인 서시, 양귀비를 일컬음.-고사 인용. ↳ 평범한 외모의 여인-소녀가 생각하는 자신을 비유

데도 낭군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저를 미워하고 복이 제게 오지 않을 게 분명해요. / 제 뜻을 결정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 소녀의 부모를 설득하는 근거 ① ↳ 소녀의 주체적인 모습

걱정 마세요. 아아! 부모님은 늙어 가시는데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사위를 맞아 그 사위가 살아 계실 적엔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를 모셔 준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 소녀의 부모를 설득하는 근거 ② ↳ 운명론적 세계관

*인정: 밤에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
*파루: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세 번 치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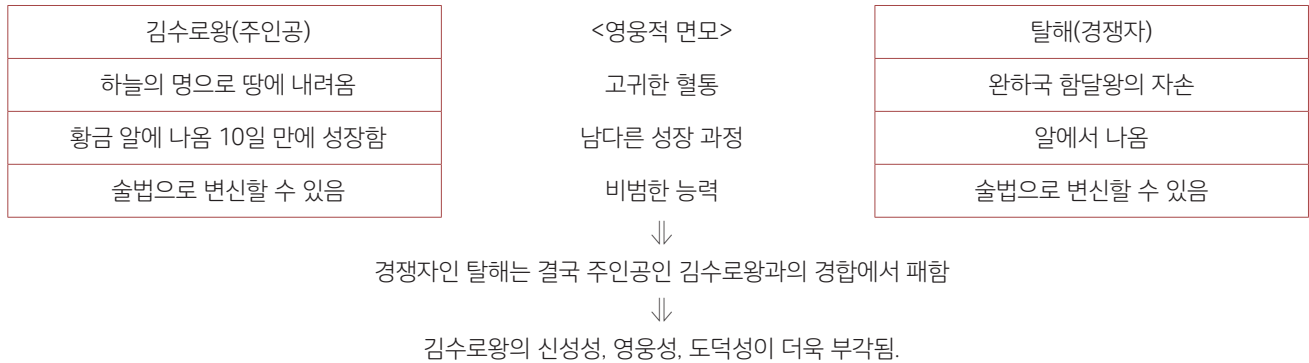
#작품의 특징

- 혼사 장에 모티프가 나타남.
-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킴.
-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함.
-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됨.
-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인물의 의도를 드러냄.



작자 미상, 「김수로왕(金首露王) 신화」

- 주제 : 수로왕의 탄생과 가야국의 건국 과정
- 인물의 영웅적 면모와 갈등 :



#EBS

해제

이 작품은 가락국 또는 가야국의 건국 신화로서 구비 전승되다가 고려 시대에 일연에 의해 『삼국유사』 <기이편>에 수록되었다. 가야국의 건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과 즉위, 혼인,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가 서사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수로가 자신들의 왕이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가야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지니는 일반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고 신탁에 의해 백성들이 신을 맞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작품에 삽입된 「구지가」를 통해 고대인의 소박한 상징 수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주제

수로왕의 탄생과 가야국의 건국 과정

전체 줄거리

구지봉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구간 등 이삼백 명이 모였다. 그곳에서 집단으로 흠을 파내면서 「구지가」를 부르며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하였더니 하늘에서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합이 내려왔다. 그 금합에는 여섯 개의 황금 알이 들어 있었는데 그 알에서 여섯 아이가 태어났다. 그중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대가야의 임금으로 즉위하고, 이름을 수로라 하였다. 임금은 임시로 도움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새로운 궁궐을 짓고 모든 정치의 기틀을 잡으며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작자 미상, 「김수로왕(金首露王) 신화」

[앞부분의 줄거리] 임인(壬寅, 기원후 42)년 3월 계육일(禊祿日)에 아홉 간(干)이 다스리는 땅의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
↳ 구체적인 연대 제시→사실성을 높임. ↳ 가야는 부족 사회를 토대로 형성된 국가임을 드러냄.

리가 들려 백성들이 모였다. 그 소리는 자신을, 하늘이 이곳의 임금으로 명한 존재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 수로왕의 목소리. ↳ 「구지가」의 노동요인 성격.

파며 노래를 부르면 곧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했다. -「구지가」가 의식요의 성격-영신군가(迎神君歌):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구간(九干)*들은 이 말을 좇아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우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
↳ 원시 종합 예술로서의 「구지가」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 ↳ 천상과 지상을 이어 주는 매개물 ↳

리워져서 땅에 닿아 있었다. 그 줄의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싸여 있으므로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
↳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서를 상징함. 대가락(가야국)을 구성하는 6가야를 의미하면서 대가락의 임금이 6명임을 보여 줌. ↳

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백배(百拜)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싸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
↳ 황금 알 여섯 개가 지닌 권위를 처음부터 인정함.

아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각기 흠어졌다. 이런 지 열두 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상자를 여
니 여섯 알은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흰칠했다.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하면서 극진
히 공경했다. ↳ 난생(卵生). 수로왕이 하늘의 후손임 → 건국의 신성성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으로 은나라 천을(天乙)과 같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나라 고조(高祖)와 같다.
눈썹이 팔자(八字)로 채색이 나는 것은 당나라 고조(高祖)와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순(舜)과 같았다.』 그가 그달
『: 외양 묘사. → 비현실적 요소와 고대 중국 성왕(聖王)에 빗댄을 통해 비범성을 강조함.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首露) 혹은 수릉(首陵)이라고 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
↳ ‘수로’의 의미 ↳: 가락국의 건국 신화임을 보여 주는 부분

洛)이라 하고 또 가야국(伽耶國)이라고도 하니, 이는 곧 여섯 가야 중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가서 다섯 가야의 임금
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그는 임시로 대궐을
세우게 하고 거처하면서 다만 질박하고 검소하니 지붕에 이은 이엉을 자르지 않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겨우 3척이었다.

↳ 꾸밈없이 수수하고

즉위 2년 계묘(癸卯, 기원후 43)년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 그러곤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
↳ 구체적인 연대

畚坪)에 나가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다가 좌우 사람을 돌아보고 말했다.

“이 땅은 협소하기가 여뀌 잎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여 가위 십육 나한(羅漢)이 살 만한 곳이다.』 더구나 『하나에서 셋을 이
↳ 수도로 정한 이유① 석가의 제자들이 살 만큼 상서로운 곳임. ↳ 석가의 제자 16명

루고 그 셋에서 일곱을 이루니 일곱 성인(聖人)이 살 곳으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에 의탁하여 강토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
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 수도로 정한 이유② 일곱 성인이 살 만큼 비옥한 곳임.

여기에 1,500보 둘레의 성과 궁궐과 전당 및 여러 관청의 청사 ↳ 가야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사무가 분리된 정치 제도를 갖춘.

와 무기고와 곡식 창고를 지을 터를 마련한 뒤에 궁궐로 돌아왔다. 두루 나라 안의 장정과 공장(工匠)들을 불러 모아서 『그달 20
일에 성 쌓는 일을 시작하여 3월 10일에 공사를 끝냈다. 그 궁궐과 옥사(屋舍)는 농사일에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하니 그해 10월
↳ 가야가 농경을 중시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음. 수로왕이 농사일을 하는 백성을 배려함.

에 비로소 시작해서 갑진(甲辰, 기원후 44)년 2월에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서 새 궁으로 옮겨 가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여
↳ 궁궐과 옥사를 짓는 일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임.

러 일도 부지런히 보살폈다. / 이때 갑자기 완하국(玩夏國) 함달왕(含達王)의 부인이 아기를 배어 달이 차서 알을 낳으니, 그 알
↳ 신라 건국기에 주변에 있던 소국.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임.

이 변해서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脫解)라 했는데, 이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다. 그는 키가 3척이요, 머리둘레가 1척
이나 되었다. ↳ 탈해의 기이한 출생 과정 ↳ 수로왕의 경쟁자 → 수로왕의 신성성과 영웅성, 도덕성을 부각하는 인물

그가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 하니 왕이 대답했다.

“하늘이 나를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겨 왕위
↳ 수로왕의 신성성 ↳ 수로왕의 도덕성

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하기를, /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 보겠소?”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



작자 미상, 「김수로왕(金首露王) 신화」

은 새매로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이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모양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원래 모양이 되었다.』

『: 수로왕과 탈해의 비범함.

이에 탈해가 옳드려 항복했다. -수로왕의 우위를 더욱 부각.

“내가 술법을 거루는 마당에 있어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모두 성인(聖人)께서 저의 죽음을 일
↳ 수로왕 수로왕의 도덕성
 치 않는 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툴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탈해는 문득 왕께 절하고 나가서 이웃 교외의 나루터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가 오가는 수로(水路)를 따라 떠났다. 왕은 그가 머
 물러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가 계림(鷄林)*의 땅 안으로 달아나므로 수
↳ 탈해가 신라로 들어가 신라 제4대 왕이 됨.

군은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기사(記事)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 건무 24년 무신(戊申, 기원후 48)년 7월 27
 일에 구간 등이 조회할 때 말씀드렸다. ↳ 가야인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을 남겼음.

“대왕께서 강림(降臨)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구하지 못하셨으니 신들 집에서 있는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
 여보내어 대왕의 짝이 되게 하겠습니다.” /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일진대, 나에게 짝을 지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
 은 염려 말라.”

왕은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해서 경주(輕舟)*와 준마(駿馬)를 가지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
 간(神鬼干)에게 명하여 승점(乘站)으로 가게 했더니 갑자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빛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에서 햇불을 올리니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오므로 신귀간은 이것을
 바라보다가 대궐로 달려와서 왕께 아뢰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여 이내 구간 등을 보내서 목련(木蓮)으로 만든 키를
 갖추고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 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하자 왕후가 말했다.』

『: 수로왕과 왕후의 만남은 하늘의 명에 따른 신성한 결합임.

“나는 본래 너희들을 모르는 터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하니 왕은 옳게 여겨 유사(有司)*를 데리고 행차해서, 대궐 아래에서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산기슭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구간: 가야국 초기의 아홉 추장.

*계림: '신라'의 다른 이름.

*경주: 가볍고 빠른 작은 배.

*유사: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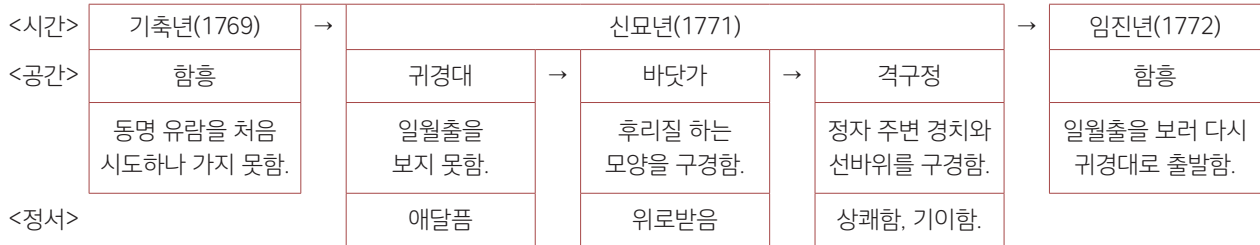
#작품의 특징

- 건국 시조의 신격화가 나타남.
- 난생 설화를 통해 인물의 신성성을 부각함.
- 비현실적인 요소와 역사적 인물에 빗대는 방법을 통해 인물의 비범성 강조
- 구체적 연대와 날짜, 지명 등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임.
- 국가의 백성들과 후손들의 자부심이 드러남.
- 「구지가」가 삽입되어 있어 「구지가」의 배경설화 역할을 함.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 갈래 : 고전 수필, 기행 수필
- 성격 : 묘사적, 주관적, 사실적
- 제재 : 귀경대에서의 일출
- 주제 : 귀경대에서 바라본 달맞이와 해돋이의 아름다움
- 시간의 흐름과 공간 이동 :



#EBS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인 의유당 남 씨가 귀경대에서 달맞이와 해돋이를 한 체험을 쓴 한글 기행문이다.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유람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유당 남 씨는 함흥 관관으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 함흥 근처를 유람하며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였다. 이 글은 달맞이와 해돋이 장면을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철의 「관동별곡」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유교적 이념이나 관념의 틀에서 탈피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순우리말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체험을 자유분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귀경대에서 바라본 달맞이와 해돋이의 아름다움

구성

- ▶ 기축년 팔월에 서울을 떠나 ~ 그런 애달픈 일이 없더라. : 귀경대에 올라 일월출을 보려 했으나 곳은 날씨로 인해 일월출을 보지 못함.
- ▶ 조반 먹고 돌아올 때 ~ 춤을 추게 하니 또한 봄 직하더라. : 귀경대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는 모습을 본 후 격구정에 오름.
- ▶ 인하여 돌아 나올 때 ~ 사군의 은혜 아니리오. : 남편에게 일월출 보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귀경대에 오를 차비를 함..

#작품의 특징

-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묘사가 뛰어남.
- 순우리말 표현으로 대상을 묘사함.
- 글쓴이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됨.
- 비유적 표현이나 색채어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함.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기축년 팔월에 서울을 떠나 구월 초승에 함흥(咸興)으로 오니』 『: 여정.

↳ 1769년. 동명 유람을
↳ 음력 초하루부터 며칠간.
처음 시도한 때로 유람을 거절당함.

다 이르기를 ‘일월출(日月出)이 봄 직하다.’ 하되 상거(相距)*가 오십 리라 하니 마음에 중란(中亂)하되 기생들이 못내 칭찬하여
↳ 여수선하되. 일월출을 보고 싶으나 거리가 멀어 혼자서는 갈 수 없어서. ↳ ‘귀경대’를 유람하기를 기생들이 추천함. ↳

거룩함을 일컬으니 내 마음이 들썩여 원님께 청하니, 사군(使君)이 하시기를

↳ 고을의 원을 높여 이르던 말(=사군). 문맥상 글쓰기가 ‘남편’을 지칭하는 말. ↳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원님). 문맥상 글쓰기가 ‘남편’을 지칭하는 말.
“여자의 출입을 어찌 경(輕)히 하리오.” ↳ 여성의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 현실이 드러남.

하여 뇌거불허(牢拒不許)*하니 하릴없어 그쳤더니 신묘년에 마음이 다시 들썩여 하 간절히 청하니 허락하고 겸(兼)하여 사군이

1771년. 시간의 흐름(기축년→신묘년)이 드러남 ↳
↳ 매우
동명 유람을 왔으나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일월출을 보지 못한 해.

동행하여 팔월 이십일 일 동명(東溟)에서 나는 중로손(中路孫) 한명우의 집에 가자고 거기서 달 보는 귀경대(龜景臺)가 십오 리
↳ 함흥에서 일출 구경으로 유명한 지명. ↳ 중로=중인. 지방에서 중인은 대개 향리 집안 사람을 일컬음. ↳ 공간①. 함흥부에서 동쪽으로

사십 리쯤 떨어진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 언덕.

라 하기에 그리 가려 했는데, 그때 추위가 오래도록 계속되어 길 떠나는 날까지 구름이 사면으로 운집하고 땅이 질어 말 발이
↳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일출을 못 봄.
빠지되, 이미 내킨 마음이라 동명으로 가니 그날이 종시 청명(淸明)치 아니하니 새벽달도 못 보고 그저 환아(還衙)*를 하려 하

더니, 새벽에 종이 들어와 ‘이미 날이 좋아졌으니 귀경대로 오르자.’ 간청하기에 죽을 먹고 길에 오르니 이미 먼동이 트더라.

↳ 친정 조카인 김기중. 김기중은 정조의 처남이기도 함. ↳ 기상 상태가 좋아졌으니 일출이라도 보자고 함.

쌍교마와 종과 기생 탄 말을 바삐 채를 치니 네 굵을 모아 뛰어 달리니 편안하지 못하여 십오 리를 경각에 행하여 귀경대에 오르
↳ 자옥한 구름 『: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일출마저 제대로 못 봄. ↳ 함흥부의 동쪽 바닷가에 있는 지명
니 『사면에 애운(靄雲)이 끼고 해 돋는 데 잠깐 터져 겨우 보는 듯 마는 듯하여 인하여 돌아오는데』 운전(雲田)에 이르니 날이 쾌

청하니 그런 애달픈 일이 없더라. - 정서 직접 제시

조반 먹고 돌아올 때 바닷가에 쌍교를 교부(轎夫)에 메여 세우고 전모를 쓴 종과 군복한 기생을 말태워 좌우로 갈라 세우고 사공

↳ 아침밥 ↳ 공간②. 자신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 위로는 느끼는 공간

을 시켜 후리질*을 시키니 후리질하는 모양이 수십 척 장목(長木)을 마주 이어 너비 한 간(間) 배만 한 그물을 노끈으로 엮어 장
↳ 글쓰기가 내린 명.
목을 치고 그물에 다는 추는 백토(白土)로 구워 탕기(湯器)만큼 한 것을 두루 달고, 동아줄로 끈을 하여 해심(海深)에 후릿그물을

↳ 국이나 찌개 따위를 떠 놓는 자그마한 그릇

넣어 해변에서 사공 수십명이 서서 아우성을 치고 당겨 내니, 물소리 광풍이 이는 듯하고 옥 같은 물굽이 노하여 뛰는 것이 하늘
↳ 그물질의 결과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물을 당기는 소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함 ↳
에 닿았으니 그 소리 산악이 움직이는 듯하더라. 일월출을 변변히 못 보고 이런 장관(壯觀)을 한 것으로 위로하였더라. 후릿그물

↳ 귀경대에서 구경하고자 했던 것. ↳ 바닷가에서 본 그물질의 결과들

을 끌어내니 언어, 가자미 속(屬)이 그물에 달려 나왔더라. - 그물질의 결과②

보기를 다하고 가마를 돌이켜 돌아올 때 가마 안에서 생각하니 여자의 몸으로 만리창파(萬里滄波)를 보고 바다 고기 잡는 모양
을 보니 세상이 헛되지 않음을 자기(自期)하여 십여 리를 오다가 『태조 대왕(太祖大王) 노시던 격구정(擊毬亭)』을 바라보니 높

『: 유람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공간③ ↳

은 봉우리 위에 나는 듯한 정자(亭子)가 있어 가마를 돌이켜 오르니, 단청이 약간 퇴락한 육칠 간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 바닥은
박석(薄石)을 깔았더라.

↳ 얇고 넓적한 돌

『정자는 그리 좋은 줄 모르겠오되 안계(眼界) 기이하여 앞은 탄탄 흰흰한 벌이요, 뒤는 푸른 바다가 돌렸으니 안목이 쾌창하고

↳ 정자를 퇴락했다고 느껴서 ↳ 평평하고 넓고 시원한 ↳ 정자에서 보는 경치는 상쾌함. ↳

심신이 상연(爽然)한데* 바다 한가운데 큰 병풍 같은 바위가 울연(兀然)히 섰으니 거동이 기이하더라.』 이르기를 선바위라 하더라.

↳ 홀로 우뚝하게. 이로 인해 기이한 느낌을 자아내어 ‘선바위’란 이름이 붙음. ↳ 『: 글쓰기의 시선에서 격구정에서 바라본 풍경의 ↳ 정자에서
아름다움을 소개함. 이로 인해 기이한 느낌을 바라본 대상.
자아내어 ‘선바위’란 이름이 붙음.

봉(峰) 아래에 악공을 숨겨 앉히고 풍류를 늘어지게 치게 하고 기생을 군복한 채 춤을 추게 하니 또한 봄 직하더라.

(중략)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인하여 돌아 나올 때 본궁(本宮)을 지나니 보고 싶되 별차(別差)가 허락지 아니하기에 못 보고 돌아오니, 일껏 벌러 가서 일월출
 ↳ 함흥부 남쪽 운전사에 있는 것으로, ↳ 본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원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

을 못 보고 무미막심(無味莫甚)하게* 다녀와 그 가엾기를 어찌 다 이르리오. - 정서 직접 제시 친정 조카인 김기중 ㄱ
 그 후 맺혀 다시 보기를 계교하되 사군이 엄히 막아 끊으니 감히 생의(生意)치 못하더니 임진(壬辰) 상척(喪戚)*을 당하여 종이를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다. ↳ 1772년. 시간의 흐름(기축년→신묘년→임진년)

서울 보내어 이미 달이 넘고 고향을 떠나 사 년이 되니 죽은 이는 이의(已矣)거니와 생면(生面)이 그림고 『종이조차 보내어 심우
 ↳ 이미 한 달이 지나고 ↳ 혼인하여 서울을 떠난 지 4년이 되니 ↳ 이미 끝난 일거니와 ↳ 가족의 얼굴이 그림고

↳ 글쓰기가 '동명 보기'를 다시 청하는 이유 - 친척의 죽음으로 인한 회포의 괴로움 때문
 (心憂)를 도우니』 회포가 자못 괴로운지라, 원님께 다시 동명 보기를 청하니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내 하되,
 ↳ 마음으로 근심함. 또는 그런 근심. ↳ '동명 보기'의 이유를 고려했을 때, 유람이 복잡하고 번다한 일상에서
 『; 친정 조카조차 없어 더욱 마음이 괴로움. 벗어나 마음을 위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인생이 얼마나 되오? 사람이 한번 돌아감에 다시 오는 일이 없고, 심우와 지통(至痛)을 쌓아 매양 울울(鬱鬱)하니 한번 놀아 심
 고통이 매우 심함. 또는 그런 고통. ↳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매우 답답하다. ↳

울(心鬱)을 푸는 것이 만금(萬金)에 비하여 바꾸지 못하리니 덕분에 가고 싶도다.”』
 ↳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 『; 일월출을 보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밝힘 → 글쓰기의 적극적인 면모

하고 비니, 원님이 역시 일출을 못 보신 고로 허락, 동행하자 하시니 구월 십칠 일로 가기를 정하니, 속기생(屬妓生) 차섬이·보배
 ↳ 동명 유람 출발일 ↳ 관청에 속한 기생

쾌락 대희하여 무한 치장 기구를 성비하는데 차섬이·보배 한 쌍, 이랑이·일섬이 한 쌍, 계월이하고 가는데 십칠 일 식후에 떠나려
 ↳ 즐겁고 ↳ 크게 기뻐하여 ↳ 먼 길을 떠날 채비. '치장'은 '여행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챙김'을 뜻함.

하니 십육 일 밤을 당하여 기생과 비복이 다 잠을 아니 자고 뜰에 내려 사면을 관망하여 혹 하늘이 흐릴까 애를 쓰니 나 역시 민망
 ↳ 출발 전날 밤 ↳ 신묘년 때처럼 날씨가 좋지 않아 일출을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함.

↳ 음력 보름날
 하여 한가지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망일(望日)에 월식(月蝕) 끝이라』 혹 『흑색 구름이 층층하고 진애(塵埃) 기운이 사면에 돌렸
 『; 보름에 있었던 월식 뒤끝이기 때문에. 월식은 보름에 일어나는데, 음력 보름에는 보름치라 하여 비나 눈이 오는 일이 많다고 함. ↳ 티끌과 먼지

으니』 모든 비복과 기생이 발을 굴러 혀를 차 거의 미칠 듯 애를 쓰니 나 또한 초조하여 겨우 새워, 십칠 일 미명에 바빠 일어나 하
 『; 좋지 못한 기상 상태 묘사. 색채어 사용. ↳ 날씨가 좋지 않아 일출을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함. ↳ 날이 채 밝지 않은 새벽.

늘을 보니 『오히려 천색이 쾌치 아니하여 동편에 붉은 기운이 일광을 가리니』 『흥중이 요요(搖搖)하여 하늘을 무수히 보니』 날
 ↳ 하늘 빛깔 『; 좋지 못한 기상 상태 묘사. 색채어 사용. ↳ 마음이 불안하여 『; 일출을 보지 못할까 염려함.

이 늦으며 『흥운이 걷히고 해 기운이 나니』 상하 즐겨 밥을 재촉하여 먹고 길을 떠나니, 『앞에 군복한 기생 두 쌍과 아이 기생 하
 붉은 기운 ↳ 일광 ↳ 『; 날씨가 좋아짐. ↳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 비유적 표현→생생한 묘사

나가 비룡(飛龍) 같은 말을 타고 섰으니 전립 위의 상모와 공작모 햇빛에 조요(照耀)하고* 상마(上馬)한 모양이 나는 듯한데』, 군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런 사치→'일출 보러 가는 일'을 비유함. ㄱ

악을 교전(鞦前)에서 늘어지게 주(奏)하니 『미세한 규중 여자로 거년(去年)에 비록 낭패하였으나 거년 호사(豪奢)를 금년 차일에
 ↳ 가마 앞 ↳ 연주하니 ↳ 지난 해(=신묘년) ↳ 올해(=임진년) ↳

다시 하니 어느 것이 사군의 은혜 아니리오.』
 『; 일출을 보러 다시 갈 수 있게 해주 남편에게 감사를 표함.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당대 여성들의 상황이 드러남.

- *상거: 거리. 떨어진 거리.
- *뇌거불허: 딱 잘라 거절하여 허락하지 않음.
- *환아: 관아로 돌아감.
- *후리질: 그물을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당겨 물고기를 잡는 것.
- *상연한데: 시원하고 상쾌한데.
- *무미막심하게: 매우 재미없게.
- *상척: 친척의 상.
- *조요하고: 밝게 비쳐서 빛나는 데가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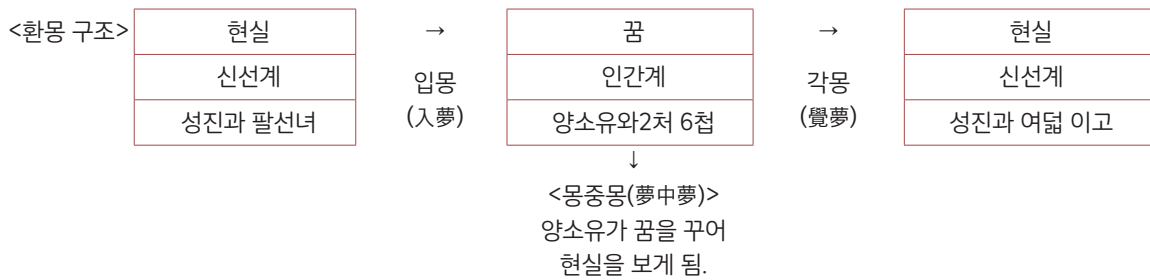


김만중, 「구운몽(東溟日記)」

- 갈래 : 국문 소설, 몽자류 소설, 영정 소설, 영웅 소설
- 성격 : 전기적(傳奇的), 불교적, 이상적
- 배경 : 시간-당나라 때, 공간-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현실), 중국의 여러 곳(꿈)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 꿈을 통한 성진의 깨달음 과정
- 주제 : 인생무상(人生無常)
- 인물 :
 - 양소유: 신선계의 '성진'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한 인물. 양 처사의 아들. 환생한 팔선녀와 만나 인간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함.
 - 진채봉: 인간 세상으로 환생한 팔선녀 중 한 명으로 가정 처음 만나는 인물. 진 어사의 딸. 성진과 혼인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
- 제목의 상징성 :

구(九)	운(雲)	몽(夢)
성진과 팔선녀(양소유와 2처 6첩)	인생무상	환몽 구조
<인물>	<주제>	<구성>

• 이원적 환몽 구조 :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소설이다. 육관 대사의 제자였던 주인공 '성진'이 세속을 탐한 죄로 인간 세상에 유배되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고 공을 세워 승상의 자리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여덟 여인과 연을 맺어 아내로 삼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인생무상을 느끼고 불도에 귀의하기로 할 때에, 호승(胡僧)이 나타나 본래 '성진'이었음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기로 한다. 제시문은 여덟 여인 중 하나인 진채봉과 의연을 맺는 과정을 그린 부분으로, 첫 번째로 여인과의 연을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양소유'의 삶은 사대부로서 품을 수 있는 내면적 욕망과 이상을 최대로 실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꿈으로 귀결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던져 준다. 이 작품은 한문 소설과 국문 소설 두 판본이 모두 전해져 오며, 이본이 다양하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건너가 향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제

인생무상

전체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연화봉에서 수행하던 승려 성진은 스승인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왕에게 사례하기 위한 길을 떠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용왕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석교 위에서 팔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하기도 하는 등 계율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른다. 성진은 도를 닦던 자신의 선방으로 돌아와 속세의 부귀공명을 잠시 꿈꾸는데, 이 때문에 육관 대사에 의해 인간 세계로 쫓겨나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고, 팔선녀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인간으로 태어난 여덟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어 2처 6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양소유는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때 갑자기 나타난 호승에 의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의 성진으로 되 돌아온다. 성진은 급히 육관 대사에게 나아가 잘못을 빌고 팔선녀도 모두 불도에 귀의하게 된다. 성진은 육관 대사의 정법을 물려받고 팔선녀와 함께 큰 도를 얻게 된다.



김만중, 「구운몽(東溟日記)」

[앞부분의 줄거리] 연화도량의 수행자이던 성진은 금욕적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다가 스승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인간 세상으로 환생 입몽(入夢). 적강 모티프 ↙

환생하게 된다. 훌륭한 청년 양소유로 자라난 그는 어느 날 과거를 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 나는데, 한 누각 앞의 아름다운 버드나무를 보고 「양류사(楊柳詞)」를 읊다가 아름다운 여인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 ↙ 양소유와 진채봉의 만남의 계기.

입낙 이 미인의 성은 진씨니 진 어사의 딸이요 이름은 채봉이니, 모친이 일찍 죽고 홀로 부친을 모셔 시방 빙폐(聘幣)*한 데 없더라. ↙ 지금. 현재

이때 어사가 경사에 가고 소저가 홀로 집에 있더니 천만뜻밖에 양생을 만나 보고 마음에 생각하되, ↙ 양소유
↙ 진채봉이 만남의 과정에 적극성을 띠게 하는 조건
'여자가 장부를 좇음은 종신의 대사라. 일생 영욕과 고락이 달렸으니, 문군(文君)은 과부라도 오히려 상여를 좇았으니, 이제 나 ↙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일.
↙ 과부 탁문군이 사마상여와 사랑에 빠졌던 고사 인용.→여인의 적극성 부각 ↙
는 처자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중매하는 혐의(嫌疑)*를 피할 수는 없으나 부녀의 절행에는 해롭지 아니하고, 하물며 이 사람의 ↙ 부모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짝을 찾는 일이 보통의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부친께 취품(取稟)*하여 정한 후 중매를 부리려 하면 동서남북에 어디 가 찾으리오?' ↙ 양소유를 다시 찾는 일이 어려울 것이 걱정되어 자신의 뜻을 서둘러 전하기로 함.
급급히 화전(花箋)을 펴고 두어 줄 글을 써 봉하여 유모를 주어 알.

↙ 편지 등을 쓰는 좋은 종이
『이를 가지고 앞 객점(客店)* 중에 가 나귀 타고 내 집 누하에 와 「양류사」 읊던 상공을 찾아 전하고, 내가 그와 인연을 맺어 일 생을 의탁하려 하는 줄을 알게 하되』 이는 나의 종신대사니 삼가 허수히 말라. 이 선비가 얼굴이 아름다움이 옥 같아 무리 중에 ↙ 뛰어난 외모로 한 눈에 땀.(=군계일학)
↙ 편지 내용 언급함. 『진채봉이 결연의 과정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모습

섞이지 않을 것이니 네 부디 친히 보고 편지를 전하라.”
유랑이 가로되, ↙ 유모

“삼가 소저의 명대로 하려니와 『타일에 노야가 물으시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혼사를 진행하는 것이 ↙ 진채봉의 아버지.
법에 어긋날 수 있음을 걱정함.

“이는 내 감당할 것이니 너는 염려 말라.”
유랑이 나가다가 도로 들어와 가로되,
“만일 낭군이 취처(娶妻)*를 하였거나 정혼한 데 있으면 어이 하리이까?” ↙ 양소유

소저가 침음(沈吟)*하다가 이르되,
“불행히 취처하였으면 내 남의 둘째 아내 되기를 혐의치 아니하거니와,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젊어 되니 실가(室家)*가 없을까 ↙ 양소유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
하노라.” ↙ 둘째 아내가 되어도 괜찮다.-양소유와 연을 맺을 뜻이 매우 굳음.
유랑이 객점에 가 「양류사」 읊던 상공을 찾으니, 양생이 마침 점문 밖에 나섰다가 나이 많은 부녀가 저를 찾음을 보고 바빠 묻되,
“「양류사」 지은 수재는 곧 소생이거니와 노랑이 찾음은 무슨 뜻이나?” ↙ 유랑
↙ 나이 든 여인.=유랑

유랑이 양생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의심이 없어 다만 이르되,
↙ 진채봉의 말처럼 외모가 매우 뛰어난.

“이곳이 말할 곳이 아니로소이다.”
양생이 유랑에게 읍하여 객방에 앉히고 온 뜻을 물으니 유랑이 되물되,
↙ 예의를 차려 인사함.

“낭군이 「양류사」를 어디 가서 읊으셨나이까?” - 진채봉이 찾고자 한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함.
양생이 답 왈,
“소생은 먼 땅 사람이라. 처음으로 서울에 와 풍경을 두루 구경하더니 큰길 북쪽 누각 앞에 수양 수풀이 극히 아름답거늘 우연히 글을 읊었거니와 노랑의 물음은 어찌한 뜻이오?” ↙ 진채봉의 집 앞

대답해 가로되,
“낭군이 그때에 누구를 보셨나이까?”
“소생이 다행히 마침 신선이 누상에 강림한 때를 만났나니, 고운 빛이 오히려 눈에 있고 기이한 향내에 풍겼나이다.”



김만중, 「구운몽(東溟日記)」

유량이 가로되, ^{↳ 진채봉} ^{↳ 외양에 대한 감각적 묘사→진채봉의 아름다움.}
 “낭군더러 바로 이르나니 그 집은 우리 진 노야 다테이요 그 여자는 우리 집 소저라. 이 소저가 영민 총혜하되 매우 지인(知人)하는 ^{↳ 총명하고 지혜로움.}

명감(明鑑)*이 있더니, 낭군을 한 번 보고 문득 일생을 의탁코자 하되, 어사 노야가 경사에 계시니 품명(稟命)*하노라 하면 낭군 ^{↳ 혼인을 하고자 함.}

이 이미 이 땅을 떠날 것이니, 대해(大海)에 부평(浮萍)을 어디 가 찾으리오? 이리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종신대사를 위하여 ^{↳ 늙은 몸=유량 자신} ^{↳ 넓디넓은 세상} ^{↳ 개구리밥. 양소유 비유}

노신을 보내어 낭군의 성씨와 향관을 알고 겸하여 혼취 여부를 알아 오라 하시더이다.』 『^{↳ 진채봉의 적극성, 주체성} 양생이 이 말을 듣고 기쁜 빛이 낮에 가득하여 사례 알,

“양소유가 소저의 청안으로 돌아봄을 얻으니 몸이 맞도록 은덕을 어이 잊으리오? 소생은 초 사람이라. 집에 노모가 계시니 ^{↳ 죽을 때까지} 확촉

의 예는 양가 부모께 아뢰고 행하려니와 혼인 언약은 이제 한 말로 정하나니, 『화산이 길이 푸르렸고 위수가 끊어지지 않았느니 ^{↳ 혼례와 달리 혼인 약속을 스스로 결정함.} ^{↳ 산 이름} ^{↳ 강 이름}

라.』』 『^{↳ 영원히 푸른 화산과 끊임없이 흐르는 위수에 빚대어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함.}

유량이 또한 소매에서 매우 작은 종이 봉한 것을 내어 주거늘 양생이 떼어 보니 「양류사」 한 수라. 그 글에 하였으되, ^{↳ 편지} ^{↳ 진채봉이 지은 「양류사」. 양소유가 읊은 「양류사」에 화답하는 시. ↳}

『누각 앞에 버들을 심어 樓頭種楊柳
^{↳ 진채봉}

낭군의 말을 매어 머물게 하였더니』 擬繫郎馬住
^{↳ 양소유} 『^{↳ 양소유가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냄.}

어찌하여 꺾어 채를 만들어 如何折作鞭』 『^{↳ 양소유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떠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
 재촉하여 장대* 길로 내려가뇨. 催下章臺路

양생이 보기를 마침에 그 글의 청신, 완곡함에 크게 감복하여 기려 이르되, ^{↳ 맑고 산뜻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함.}

“비록 옛 시 잘하던 왕우승과 최학사라도 이보다 낫지 못하리로다.”
 하고, 즉시 화전을 떨치고 한 수를 지어 유량을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버들이 천만 실이나 하니 楊柳千萬絲
^{↳ 여러 실가락을 늘어뜨린 형태를 취하는 버들의 모습 묘사.}

실마다 마음 굵이에 맺혔도다.』 絲絲結心曲
^{↳ 자신이 진채봉에게 마음을 두었음을 알림.}
 『^{↳ ‘천만 실’마다 ‘마음 굵이’를 ‘맺’는 표현을 통해 진채봉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음을 표현함.}

원컨대 월하노인의 노끈을 만들어 願作月下繩
 봄소식을 매어 정하고자 하노라. 係定春消息
^{↳ 양소유가 진채봉과 연을 맺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유량이 받아 몸에 감추고 점문을 나서니 양생이 도로 불러 이르되,
 “소저는 진 사람이요 나는 초에 있으니 한번 돌아간 후는 산천이 만연하여 소식도 통키 어렵고, 하물며 오늘 일은 어진 중매인이 ^{↳ 당일밤에 만날 것을 요청하는 근거-소식을 다시 전하기 어려울 수 있음} 없으니, 소생의 마음에 마침내 짚이는 곳이 없으니 오늘 밤 달빛을 타 능히 소저의 안색을 보랴? 소저의 시에 또한 이 뜻이 있

니 노랑은 소저께 취품하라.”
 유량이 가더니 즉시 도로 와 회보하되, ^{↳ 돌아와서 보고하다.}

“우리 소저가 낭군의 회답한 글을 보고 십분 감격하여 하시며 낭군이 달빛 아래 만나려 하는 것을 전하니 소저가 이르되, ‘남녀가 ^{↳ 아주 충분히}

혼인 전에 서로 봄이 예의가 아닌 줄을 알되 바야흐로 그 사람에게 의탁하려 하며 어이 그 뜻을 순종치 않으리오마는, 밤에 서로 ^{↳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

보면 사람의 의심이 있을 것이요 부친이 들으셔도 더욱 그릇 여기실 것이니, 밝는 날로 중당에서 잠깐 보고 언약을 정하시이다.’ 하시더이다.” ^{↳ 양소유의 청을 거절하는 이유. 진채봉의 주체적이고 현명한 판단 능력이 돋보임.}

양생이 차탄하여 가로되,



김만중, 「구운몽(東溟日記)」

↳ 탄식하고 한탄하다.

“소저의 밝은 소견과 정다운 뜻은 소생이 미칠 바가 아니로소이다.” - 소저의 현명함을 칭찬함.
유량이 재삼 당부함을 듣고 가니라.

- *빙폐: 혼인 전에 신랑 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채단(采緞), 폐백(幣帛), 납폐(納幣).
- *혐의: 꺼리고 싫어함.
- *취품: 웃어른께 여쭙어서 그 의견을 기다림.
- *객점: 예전에, 오가는 길손이 음식을 사 먹거나 쉬던 집.
- *취처: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음.
- *침음: 속으로 깊이 생각함.
- *실가: 집, 가족, 아내 등을 뜻함. 여기서는 아내.
- *명감: 뛰어난 식견.
- *품명:윗사람의 명령을 받는 일.
- *장대: 한나라 때 변화가가 있던 곳으로, 기방이 많았던 거리로 알려져 있음.

#작품의 특징

- ‘현실-꿈-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을 취함.
- 몽중몽(夢中夢) 구조를 취함.
-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나며, 그중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룸.
- 인물의 행위 근거를 고사를 통해 제시함.
- 삽입시를 통해 인물의 정서와 의도를 드러냄.
- 관습적,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내면을 드러냄.
-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함.